

#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2호 2010년 4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모교의 제25대 총장 후보로 선정된 3인의 후보 교수들. 좌로부터 성낙인·오세정·오연천 교수의 최근 모습이다.

## 제25대 총장 후보 3인으로 압축

### 5월 3일 전임강사 이상 교직원 직접투표 법인화되면 '법인서울대' 초대 총장

모교 제25대 총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서울대 총장후보 초빙위원회(초빙위)는 최근 “성낙인(법학부, 59세)·오세정(물리·천문학부, 57세)·오연천(행정대학원, 59세) 교수 등 3명을 총장후보 대상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3인의 후보가 모두 경기도 출신으로 성낙인 교수는 파리 제2대학, 오세정 교수는 스탠퍼드대, 오연천 교수는 뉴욕대 Ph.D를 받았다.

초빙위는 총장후보 대상자 공개모집에 지원한 7명의 동문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개별인터뷰를 비롯한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3월27일 투표로 이처럼 최종 3명을 선정했다.

모교는 5월 3일 전임강사 이상 교원과 교직원의 직접투표로 3명 중 임기 4년의 차기 총장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와 2위를 정부에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현재 ‘서울대 법인화안’이 국회에 넘어가 계류 중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임 총장은 ‘법인서울대’의 초대 총장이 되며 이후 총장선거는 간선

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후보 교수들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견을 밝히고 법인화와 세종시 캠퍼스 조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성낙인 교수=국제화를 추

진해 임기내 모교가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화안이 수정돼야 하며 총장이 이 사장을 겸해야 예상되는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세종시가 연

구산업 중심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서울대가 새로운 연구시설이나 기관을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정 교수=우수연구자와 신진교수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가제도를 정착하겠다. 현 시점에서 법인화도 한 선택이나 학문의 자유, 대학의 비관정신, 기초·보호 학문의 육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종시 학부 이전은 반

대하며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연구조직 설립은 고려할 수 있다.

▶오연천 교수=학부교육 강화, 후속학문세대 양성, 연구기반 확충, 소외계층 지원을 추진하겠다. 구성원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성, 재정 보장, 학문 균형발전,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법인화가 돼야 한다. 세종시 캠퍼스는 융합 부문 연구, 글로벌 가치 관련 기관이 우선이고 기존 교육단위의 이전은 부적절하다.

성낙인 교수의 화두는 ‘글로벌’이다.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에 와야 한다. 정합되는 분야는 영어 강의를 확대해야 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헌법학의 권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세종시 이전 등 정치·사회 현안에 핵심적으로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세정 교수는 경기중고·서울대를 모두 수석입학·수석졸업한 수재로 스탠퍼드대 재학 중 미 과학재단(NSF) 장학생으로 입학한 9명을 제치고 논문자격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자문위원으로 교육과 과학 분야 정책 입안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오연천 교수는 글로벌 학문 흐름을 이끈다는 취지로 정부와 가칭 ‘BW(Brain Worl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과 산업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 ‘VISION2025’ 성공노획 3천억 목표 95% 달성

서울대 발전기금(이사장 이장무·이하 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이장무 총장 취임후, 세계 명문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국내대학 최초로 3천억원 모금 캠페인 ‘VISION2025’를 펼쳐왔다. 올 7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캠페인에 지난 1월 현재 총 2천843억여원을 모아 목표 모금액 대비 94.8%를 달성한 상태다.

동문의 참여는 캠페인이 진행되기 전인 2002~2005년 한해 평균 400건에서 캠페인 기간인 2006~2009년 1천300여 건으로 증가했고, 비동문 약정액은 64.3억에서

536.4억으로 무려 8.3배가 증가했다.

또 과거 대학의 모금은 법인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기업체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컸지만 캠페인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는 개인 기부의 비

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발전기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주식·현물·유증(遺贈) 등 다양한 방식을 개발, 기부자의 수월한 기부를 위해 개인에 맞춘 기부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 펀드레이저·세무사·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단을 구성해 기부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률문제 등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부 컨설팅 시스템을 만든 것.

이장무 총장은 기부컨설팅 시스템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기부를 결정한 기부자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우를 제공하고 기부자의 후원 보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부자에게 맞춘 예우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해 기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면에 계속>

PRSR STD  
NON\_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I 1068

## 특집 · 기획

<충무공 탄생 465주년> 이순신의 기초가 된 세가지 문성 .....3면  
<4.19 반세기> 시위중 중상입은 김신용 동문의 현장 체험기 ....4~5면



종합

백수연·Cruise·VISION 2025·모교 민주화의 길



오재인 등문 '백수연'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남가주 원로 등문 오재인 박사(앞줄 가운데)의 99세 ‘백수연’이 3월 28일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1912년 3월 27일생의 오 등문은 일제 치하 ‘경평축구’에서 서울대표로 축구장을 누볐던 한국 축구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경성치전(서울치대 전신) 시절 축구팀 대표로 일본 원정에서 일본 최강팀을 2

대 0으로 완파했던 일도 있다.

오 등문은 1969년 미국에 온 후 미국면허를 따지 못해 봉제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던 한국출신 치과 의사들을 위해 재미 한인치과 의사협회를 설립해 주정부에 로비했다. 덕분에 한국 자격증의 치과전문의들이 시험을 통해 미국면허를 따 정식 치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치과 의사협회는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가주 한인 의사회 재미 의료인 연합회 청운 장학회 등 직접 설립한 단체만 10개가 넘는다.

오 등문은 4대째 인술을 펼치고 있는 의료인 집안이다. 부친 오명량씨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내과 의사였고 장남 오홍조 박사도 대를 이어 치과 의사로 LA에서 개업 중이다.

딸 오미영씨는 정신과 전문의, 장손 존 오씨와 손주 며느리 티나씨도 토머스 제퍼슨 의대를 졸업, 의과와 방사선과 전문의다.

서 모교는 모금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여기에 다양한 기부자 맞춤형 서비스들을 마련했다.

모든 구성원이 세계 10위권 명문대 도약을 목표로 힘 모아 달려온 모금캠페인은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서울대 홍보부>



지난 2008년 열린 VISION 2025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에서 각계 각층의 동문들이 모여 교가를 부르고 있다.

<1면에서 계속>

특히 연고가 없는 기부자가 유언을 통해 기부한 경우, 기부인의 요청에 따라 장지구입, 빈소마련, 발인 등 장례사후처리와 49제 등 유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맞춤형 장례 예우서비스’도 시작했는데, 발전기금은 이러한 기부자 맞춤형 예우 서비스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 기부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

해준 기부인의 명예가 빛날 수 있도록 기부인 이름을 새긴 명판을 학교본부 현관에 새롭게 단장하고 기부자를 대상으로 모교 근조기를 무료로 전하는 근조기 예우 서비스 등 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총장은 학부모 모금캠페인으로 약 4억 5천만원, 교수와 교직원, 학생 모금캠페인으로 약 60억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 유력인사 800여명을 초청한 ‘2008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당일에만 11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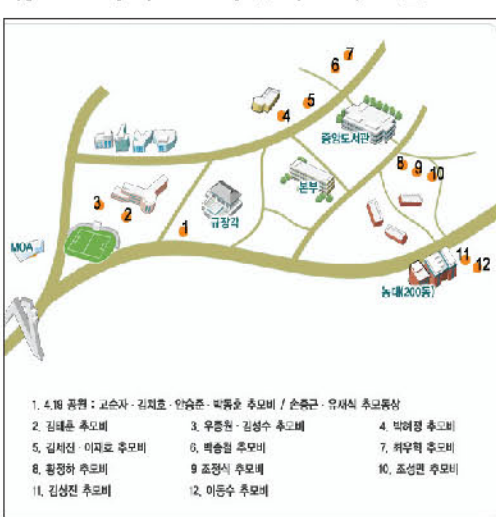
해외 명문대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추진하면

모교에 ‘민주화의 길’

4.19기념탑에서 1.2km 구간 총 19명의 희생 동문들 추모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19명의 모교생을 추모하

는 ‘민주화의 길’이 지난 해 말 모교 캠퍼스에 조성됐다.



‘민주화의 길’은 두레문예관 앞 4·19기념탑에서 시작해 농성대의 이동수 추모비에 이르는 1.2km의 길이다.

지난 해 11월 중앙도서관 옆 박종철 추모비 앞에서 열린 ‘민주화의 길 조성 기념식’에서 이장무 총장은 “4.19부터 6.10 항쟁까지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정의의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과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고(故) 박종철 동문의 부친 박정기씨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 대표 인사말에서 민주화의 길을 만든 서울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모교는 지난 2007년 6·10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서울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지난 3월에는 ‘민주화의 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흩어져 있던 추모비들을 길 가까이로 옮기고, 길 중간 4곳에 안내표지판을 세웠다. 또한 1960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학생 6명을 기리는 4·19공원을 조성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진 학생 19명을 기리는 추모비와 동상을 세운 바 있다. <서울대 홍보부>

Very Affordable Cruise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목적은 ‘모교발전에 기여하고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창회의 발전기금이 설립돼 있고, 또 서울 총동창회 장학빌딩 기금을 위한 모금도 해왔습니다. 더구나 모교발전기금재단이 미국서 세금을 공제받는 재단으로 인정받게 됐으니 여러 동문들이 모교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동창회보를 통해 매월 미주 6천여 동문과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모이는 평의원회에서는 미주 23개 지역과 Canada 3개 지역 동창회를 대표한 평의원들이 참가해 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사도 교환하고 안전도 결정하며 또한 친목의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미주 동창회 동문간 친목활동은 주로 지역 동창회 주관으로 각 지역별로 Golf대회, Picnic, 연말Party 겸 총회로 실행되고 있으며, 미주 동창 모두의 참여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전 동문을 대표하는 모임이기는 하지만, 전체 동문 수에 비해서 극소수만 참가할 수 있으므로 소수만의 동문회와 같은 느낌



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동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결국 온 동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동창회보에 두 차례 게재 됐지만 Cruise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총동창회가 주최함으로써 좀 더 Affordable Cruise가 될 수 있을지 동문 여행사에 부탁한 결과 저렴한 Cruise 가격으로 Private Tour를 함께 포함해서, 많은 동문들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비로 여행Program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큰 사업중 하나로, 아무쪼록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여행도 즐기며 또한 여러 동문들을 만나 옛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주 총동창회장 송순영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채홍(NY) 백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재(SF) 장성정(CH) 정종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조민규(문) 조봉환(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혜(사)

이번 호의 차례

- 3. 이순신의 기초가 된 3가지 품성 4~5. 김신웅 동문의 4.19 체험기
- 6. 국민소득·생산통계로 본 한국경제
- 7. 우리 민족의 혼 승려문 복원

- 8. 오바마 의료개혁 <4>
- 9. 출애굽 Exodus-2 입엽편주 3일야
- 10. 아프간 살리는 콩이름은 우리말 콩
- 11. 건물 넘어 삶을 설계하는 삶
- 12. 심리·사회·생물학적 결합 다루는 분야
- 13. 춘원 이광수와 현대 정신의학 발전
- 14. 이해인 수녀와 법정 스님의 편지

- 15. 세계 명화 지상감상 <폴 고갱>
- 16~18. 지부 뉴스 & 동문 동점
- 19. 고국동문 동점
- 20~22. 동창회비·후원금 납부현황
- 23. 동문 업소록
-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 31~32. 광고



## 특 집

## 충무공 탄신 465 주년 기념

## 이순신의 기초가 된 세가지 품성

## 인간에·원칙주의 실행주의·깊이를 모르는 겸손



이내원(사대 58)  
이순신 숭모인

충무공께서는 1545년 4월 28일(음력 3월8일) 태어나셨으니 2010년 4월28일은 탄생 465주년이 되는 뜻있는 날이다.

이 날을 맞아 공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에 대한 역사적 기술·평가·조명시각 등도 시대와 함께 사뭇 변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순신 전사 후 이제 왕조 후반기에는 임금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고전적 충신 ‘충무공’으로 숭앙받으며 충효사상의 표본으로 자리매김되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되면서는 반발 보상심리가 작용한 탓일까, 무패 명장, 전쟁영웅, 성웅 이순신을 거쳐 구국의 은인으로 은 국민의 지극한 숭모의 대상이자 민족적 자부심의 표상으로 부동의 최상위에 자리 잡은 바다.

한반도에서 지난 반세기 관심에서 멀어져 간 전쟁을 떠나 이순신을 좀더 인간적으로 보려는 ‘인간 이순신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본다.

이는 참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세월을 기울여 살피고 더듬어 도달한 결론은 이순신이 진정한 위대한 이유는 세계 인류 역사상 시공을 초월해 비견할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은 인격적 완성도’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그분의 성품을 단 세가지로 줄여 말하기도 또한 지극히 두렵고 숭구한 마음이나 독자들께서는 강조법의 하나라고 이해해주길 바라며 ‘충무공·장군’ 등 관직이나 경칭을 생략하는 것은 몇칠을 벗기고 순수 자연인으로 보기 위한 한가닥 노력임을 미리 밝혀 둔다.

## 첫째, 인간애

이순신을 가장 빛나게 하는 성품은 단연 성자(聖者)의 경지에 이른 ‘인간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충성의 진정한 대상은 임금이나 중앙 관료집단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었다. 그래서 공은 항상 험빛고 가난한 백성이나 힘없고 초라한 부하들 편에 서 계셨다.

임진왜란 초반, 선조임금의 의주 피난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제목없는 시 한편에서 공

의 마음을 읽어 보기로 한다. ‘北來消息杳無因 白髮孤臣恨不辰 袖裡有韜推勁敵 胸中無策濟生民 乾坤點點露癡甲 關海涯 血滄塵 待得華陽歸馬後 幅巾還作枕溪人(아득하다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외로운 신하 때 못탄 것 한이로구나.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병법 있건만 가슴 속엔 백성 건질 방책이 없네. 천지는 캄캄한데 갑옷엔 서리 엉키고 산과 바다 비린 피가 티끌 적시네.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 보낸 뒤 복근 쓴 처사돼 살아가리라)’

두번째 연을 보면 전쟁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병법’이 있다고 승리를 미리 확신하고 있는 반면, 군사책임자로 피난 백성을 쫓겨야 할 직접적 구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엔 백성 건질 방책이 없네’ 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으며 공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을 짐작할 수 있다.

임진장초는 ‘작전수행 보고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진년 6월14일 당포, 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에는 “접전할 때, 사졸로서 화살이나 첩환(총알)을 맞은 사람 중에는 신이 타고 있는 배의 정병 김말산, 우후선의 방포진무 장언기, 순천 1호선의 사부이며 사살집 중

인 박대와 보자기(물속에 들어가 조개 미역 등을 채취하는 사람) 내은석, 보성 1호선의 사부(활 쏘는 사람)이며 관청의 종인 기이, 홍양 1호선의 사부이며 진무인 장희달 여도선의 사공이며 토병인 박고산

과 격군(배 젓는 사람) 박궁산 등은 첩환을 맞아 죽었으며... 방포장(화포 쏘는 사람) 허중원 등은 화살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다. 위의 사람들은 시석(화살과 돌, 곧 총알)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돌진하다가 혹은 죽고 혹은 상한 것이었으므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각기 그 장수에게 명해 별도로 작은 배에 실어 고향으로 보내 장사지내게 했

는데 그들의 처자들은 홀전(구호대책)에 의해 돌파주라고 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온갖 천한 직종이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성들여 썼으니 이보다 더한 보살핌이 다시 있을 수 없다. 이 장계에 따라 어떤 포상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자칫 이름없이 스러졌을 민초들의 이름이 이로 인해 청사에 영원한 기록으로 살아 남았으니 공의 기록정신과 함께 투철한 민권의식을 엿보게 된다.

백의중군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한산도 삼도 수군통제사

전투에 5년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양성한 5천 병사를 하루아침에 전멸의 길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 차라리 자기 자신을 대신 희생시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순신 애민정신의 또 다른 본보기인 셈이다.

덧날, 이 명령을 따른 원군이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을 충두리째 전멸시킨 사실은 이순신의 판단이 얼마나 탁월했든가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필자는 이순신의 전술을 ‘생존전술’이라 이름지어 부르는데 이유는 이순신이 구사하

는 전술의 특징은 오직 적에게만 타격을 입힐 뿐 우리 병사는 온전히 아끼며 보호하는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일본 군선 73척과 조선 군선 56척이 격돌한 그 유명한 한산대첩 결과를 보면 일본 선박 59척격파, 인명피해 4~5천 명에 비해 조 선군은 선박 손실없이 인명피해만 19명을 낸 불가사의한 압승으로 결판났기 때문이다. 이는 인명을 지극히 아끼는 ‘생존전술’ 때문으로 이순신 인간애의 또 다른 표본이다.

이순신의 수군 진영에는 늘 피난민 선단이 100~300 여 척씩 모여 들었는데 다른의 장수라면 작전에 방해된다고 쫓아 보냈을 터인데 이순신은 모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섬을 개간해 둔전을 만들어 군민이 함께 농사지어 식량을 자급하는 대책까지 고안해 냈으니 이 모두가 공의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고집스럽게 원칙에 집착해 융통성을 배안시 한 듯하다. 외곬원칙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원칙주의로 군말과 토를 달 필요없이 효율적인 단순의사 결정방식의 잇점과 엄격한 자기관리의 기본으로 삼으신 듯하다.

## 둘째, 원칙주의·실행주의

함경도 변방에서 초급군관 임기를 마치고 한양의 훈련원 인사담당 봉사로 발령받아 근무할 때 직속상관 병부랑 서익이 서열을 무시하고 자기 아는 사람을 특혜 승진시키려고 했으나 이순신의 원칙주의에 결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건이 은근히 퍼져나가 당시 병조판서 김귀영에게 들리게 됐다. 마침 김귀영에게는 혼기가 찬 서녀 딸이 있었는데 이순신을 유망한 젊은이로 보고 서녀를 첩으로 주겠다고 매파를 보내왔으나 이순신은 자기 같은 초급장교가 병조판서 같은 권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단칼에 거절해 버리고 말았다.

또 이순신이 모함과 탄핵을 받아 한동안 무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유성룡이 당시 이조판서로 인사권자의 위치에 있던 같은 덕수 이씨의 조카딸인 율곡 이이를 찾아가 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이 판서가 같은 덕수 이씨 문중이니 만나는 것은 좋겠으나 지금은 그가 인사권자 현직에 있으니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파디로 거절해 버렸다.

당시 현역군인이 휴가가면 휴가 기간 먹을 식량을 지급받아가게 마련이었었는데 이순신은 떠다 남은 지급식량을 되 가져와 반납까지 하는 고집스러운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순신을 결정적으로 부가 상송시킨 요인은 공의 실행주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인간사를 보더라도 성패는 알고 모르는 차이에서 판가름나기 보다는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을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다. 이순신의 실행주의는 보통의 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죽어도’ 실행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경상 좌수사 박홍은 이순신의 전라좌수영과 같은 24척의 판옥선단을 가지고도 적세가 대단하다는 말만 듣고 선단을 수물시키고 도주하고 말았다.

73척의 가장 많은 선단을 거느렸던 원군도 병사를 해산, 선단을 수물시키고 도주하려는 찰라 부하 장수들의 질책을 받고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11페이지에 계속 >

<고침> 지난 3월호 3페이지 고병철 박사의 ‘이명박 정부와 한일관계’ 내용중 컴퓨터 원고이전과정 오류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 수가 15명에서 5명으로 잘못 표기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순신 영정 - 1977 정형모 작, 한산 충무사 봉안



## 4.19 특집

## 시위중 총상입은 김신웅 동문의 생생한 현장 체험기



김신웅 동문이 4.19 학생시위 도중 경무대 앞에서 경찰총격에 관동당한 부위를 가리키고 있다.

## 어머니 불길한 꿈 만류 외면 시위 참가 총에 맞은 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로구나”

위가 멈추지 않아 경찰의 발포로 다시 2명이 더 희생된 것으로 기록됐어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대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졌는데 서울에서는 어땠나요?

▶서울에서는 각 대학생 단체 대표들이 모여 협의 결과 19일 아침 광화문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시위를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런데 전 날인 18일 고려대생들이 먼저 교문을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4.19는 고대생들이 맨 먼저 벌인 것으로 소문이 나게 됐지요.

-김 동문은 어떻게 시위에 가담하시게 됐는지요.

▶19일 오전 10시경 교양강좌 ‘문화사’ 시간이었어요. 한창 수업중 우리 과(가정교육) 학생중 김기훈이 일어나 “교수님, 저희들은 이만 가 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멍하니 계셨는데 학생들이 하나둘씩 일어서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가 봐야 합니다” 하고 모두 문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강의실 문을 나서 교정으로 나가니 이미 다른 학생들도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었지요.

-교수님들이 말리지 않으셨나요?

▶교수님들도 전날부터 이미 모든 정황을 아셨던지라 어느새 교문 양쪽에 2열로 도열하셔서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계셨지요. 그러나 그 때의 분위기는 교수님들이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전차를 타고 광화문으로 집결해갔어요.

-모교에서는 문리대·법대·비대·상대생 등이 합세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죠.

▶그날 동승동 우리 모교 캠퍼스에서만도 3천여 명의 동문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을지로에 있던 우리 사대생들이 모두 가세했지요.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 건국대·중앙대·동국대생들 외에 동성고를 비롯한 고교생들까지 합세해 광화문 거리는 학생들의 물결로 가득찼습니다. 이색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의대생들과 약대생들은 흰 가운을 걸친 채로 참가했어요.

-집에서도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을텐데요.

▶그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간밤 꿈자리가 아주 불길하니 혹시라도 시위에는 절대로 참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가 모두 빠져버렸는데 허로 훑치니 새로 나오더라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굉장히 기분나쁜 꿈이라고 하겠어요. 게다가 평소 아주 단적인 김중숙이가 그 날 “우리는 시위에 참가하지 말자”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협심에 충만하던 내 성격상 용담이 안됐어요. 내가 한사코 참가를 고집하니까 종숙이도 할 수 없이 나를 따라나섰죠.

-시위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광화문에 이르니 벌써 장안의 대학생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지요. 모두들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이승만 독재 정권 물러가라. 부정부패 물리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학생 대표자들이 “우리 모두 경무대로 가자” 하는 외침에 따라 경무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는데 너무 파

가와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5~6명 또는 8~10명씩 스크럼을 짜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진압하는 상태로도 경무대까지 갈 수 있었나요.

▶광화문에 집결해 있는 동안에도 학생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경찰이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당시 학생들의 시위는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소방대원들까지 동원돼 소방호스로 물을 쏘며 막았지만 우리들은 “이승만 물러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국 경무대까지 진출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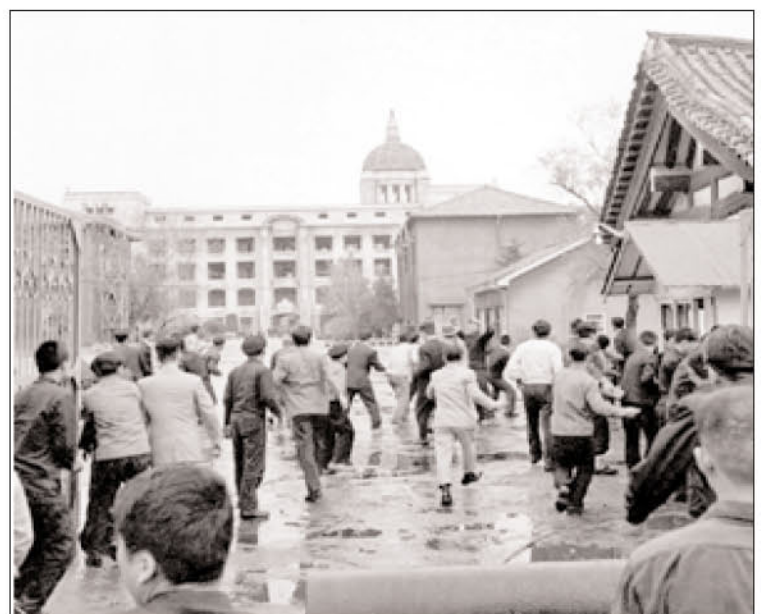
-경무대 앞은 어땠나요.

▶경무대 입구에는 커다란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었고 경비 경찰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앞까지 간 다음 학생 대표들의 지시에 따라 맨 앞쪽에 여학생들이 도열해 앉고 양 옆에는 의대생들과 약대생들이 흰 가운을 입은 채로 길바닥에 앉았어요. 여학생들을 앞에 앉힌 것은 그래도 여학생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무대 안까지 들어갈 계획이었나요?

▶동성고교생들로 기억되는데 그들이 흥분한 나머지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당황한 경찰들이 처음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지요. 이에 앉아 있던 학생들이 놀란 나머지 모두들 길바닥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학생 대표가 “저건 공포탄이니 안심하라” 하고 소리쳤어요.

↓시위학생과 시민들이 경무대로 물러가 돌을 던지고 있다.



는데요.

▶마산시 야당 상급당인 경남도당이 선거포기를 선언하자 그날부터 시민들과 학생들이 합세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요.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했어요.

-결국 희생자가 속출했지요?

▶시위대는 1만여 명으로 불어났는데 그 날 8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나서 극에 달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위대에 가담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됐는데 4월11일 중앙부두 바다에서 눈에 최루탄 파편이 박힌 채 발견됐어요. 이에 마산시민들과 학생들의 흥분상태는 완전히 극에 달하게 됐다고지요. 이때부터는 시위대 숫자가 무려 3만여 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야간에도 시

↓대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든채 광화문 거리를 시위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근세사에서 1960년 4.19 혁명만큼 격동적인 소용돌이도 없을 것이다.

4.19는 강력한 독재정권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낸 거룩한 시민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의 김신웅 동문(사대 59)은 50년 전 그날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총격에 오른 팔 관동상을 입은 역사적 증인이다.

부군(김윤겸 치대 57) 역시 동문인 자택을 방문해 그 날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편집주간>

-4.19의 배경을 다시 한번 회고해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을 옹립한 자유당 정권의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가 원인이죠. 결정적 동기는 1960년 3월15일의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직접 도화선이 아니겠어요.

-당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잘 알려져 있드시피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유행 물표 등 갖가지 부정선거판이었다고 기록됐지요. 오죽하면 마산에서는 야당이 선거 포기를 선언했겠어요.

-선거 결과는요.

▶이승만 후보가 88.7%,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80%로 야당 후보는 아예 개입이 안됐지요. 이보다 4년 전인 19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 후보가 이기붕 후보보다 20여만 표가 더 많았는데 이 선거에선 이기붕 후보의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결국 마산에서부터 4.19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



## 4.19 특집

## 시위중 총상입은 김신웅 동문의 생생한 현장 체험기

## 모교생 6명도 거룩한 희생치러 “나도 기독교인인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

-정말 공포탄만 쏘았나요?

▶조금 뒤 “해산-” 하는 강한 목소리와 함께 심한 총소리가 들렸는데 얼굴을 들고 보니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길 양쪽으로 뛰어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에게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지요. 당시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엉겁결에 일어나 뛰어 달아나던 도중 무엇인가 오른쪽 어깨를 아주 강력하게 타격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셨겠네요.

▶그저 정신없이 달아나던 중 남학생과 부딪쳐서 그러려니 했는데 조금 있다보니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피가 철철 흐르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가물 가물해져 주저앉고 말았지요. 스커트를 입고 목에서부터 어깨 밑으로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는데 가디건에 구멍이 뚫렸고 피가 낭자해지는 것이었어요. 오른쪽 팔은 전혀 감각이 없어지고 정신조차 점차 몽롱해져가는 데 “끌어, 끌어...”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학생이 총상을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 시민들이 어서 구해내야 한다는 소리 같았지요.

-그 날 경무대 앞에서만도 경찰의 발포로 21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핏 몇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은 본 것 같지만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당시 상황이 원체 급박했던 데다가 나 자신이 총을 맞은 상태에서 정신조차 희미해져 가는 판에 다른 경황을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여간 이 날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너무 많아 ‘피의 화요일’로도 불렸잖아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무대 근처에 있는 개인병원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아는 데 그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했다고 해요. 데모에 가담한 학생을 치료해주었다가 나중에 추궁을 당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신촌 세브란스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도 부상당한 시위대들이 많아 응급처치만 받고는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지요.

-심한 총상이라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렸겠네요.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 결과 총알이 오른쪽 어깨 바로 아래의 팔을 관통했다고 해요. 총알이 들어간 부위보다 관통해 빠져나온 부위의 상처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혹시나 오른쪽 팔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잔뜩 겁을 먹기도 했죠. 다행히 뼈를 다치지지는 않았는데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절단됐다고 해요. 그래서 겨드랑이부터 거의 팔꿈치까지 길게 찢고 몇 차례나 신경 접합 수술을 받아야 했지요. 그 바람에 20여일을 꼼짝없이 입원해야 했어요.

-치료는 잘 됐나요?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오른 팔은 완전하지 못해요. 힘을 쓸 수 없는 데다가 맥박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마다 왼쪽

팔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도 정말 그만하기 천만 다행이 아닐까요.

▶의료진들이 그러는데 당시 약 10여 센티미터만 가슴 안쪽으로 총을 맞았으면 그대로 사망할 뻔 했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 이만하기도 천행이라고 생각할만 하지요.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을 때의 심정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팔을 관통당해 비록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피가 낭자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태에서 문득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인데 과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웃음)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병원으로 후송돼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뒤 피묻은 원피스와 가디건을 곧바로 집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 집에서 한바탕 큰 난리가 났겠죠. 어머니에게 그렇게 가슴 찡찡할 일을 저지른 것은 지금 생각해도 못할 짓 아니겠어요?

-모교에서는 미대 교수자, 상대 안승준, 법대 박동훈, 문리대 김치호, 그리고 같은 사범대 손중근과 유재식 동문 등 6명의 모교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거룩하게 스러졌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소식으로만 들었어요. 우리 모교생 중 이렇게 여러 명이 희생됐다는 뉴스도 들었지요. 이기봉씨 일가가 권총으로 자살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뉴스도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져 많



김신웅 동문이 4.19 당시와 관련된 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은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는 관공서 건물 20여 곳이 파괴되고 100여 명이 희생됐다고 했죠. 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온 국민들이 합세한 시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위는 인천·부산·대구·광주·청주 등 전국적으로 번져 자유당 정권이 수습할 단계는 이미 한참 넘어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교 교수님들께서도 직접 시위에 나서게 됐지요?

▶4월25일 모교 교수회관에 300여명의 교수님들이 모여 ‘시국선언문’을 만들어 선언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4.19 학생 시위에 대해 부정부패 정권에 대한 민족 정기의 발로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대법관과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지요. 정 부통령 선거의 재실시와 부정부패 선거의 원흉들에 대한 처단 등도 물론이구요. 또한

모교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서울 각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결국 4.19 일주일 뒤인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지요.

▶라디오로 대통령 하야 소식을 듣는 순간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합세한 시위대들이 파고다 공원의 이승만 대통령 동상까지 끌어내려 끌고 다녔으니까요.

-단짝 종숙씨는 시위 때 어떻게 됐나요.

▶천만다행으로 무사했어요. 시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을 내가 우겨서 하는 수없이 나를 따라 갔는데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나 혼자 한평생 내내 큰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입원생활은 어땠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나 뿐만 아니라 시위대에 가담했다가 부상당한 학생들 모두에게 크게 고마워했지요.

그 중에서도 세브란스 의전의 저명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Frank W. Schofield, 1889~1970)가 몇 번씩이나 문병을 와주신 것은 큰 힘이 됐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내 병실에 들어와 크게 위로해주곤 했지요.

-4.19 유공 학생으로도 선정됐었다고 하는데요.

▶화신 백화점을 창업하신 박흥식씨가 당시 4.19 학생 혁명에 지대하게 공헌했다고 평가된 이들이 대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나도 여기에 선발돼 장학금을 받았지요. 하여간 4.19는 내 평생 가슴에 남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스코필드 박사(중앙)는 몇 차례나 병문안을 와서 나(오른쪽에 서 두번째)크게 격려해주곤 했다. 오른쪽은 단짝 김종숙 동문.



↓박흥식 화신백화점 창업주(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는 4.19 유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둘째줄 왼쪽 첫번째가 김동문





## 경제 칼럼

## 국민소득·생산 통계로 본 한국경제



오종남(법대 75년 졸)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

지난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중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천175달러로 2008년의 1만9천296달러에 비해 2천121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등의 의미를 한 번 되새겨 보고 그동안 이들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 GNI 2,100여달러 감소

지난 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소위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 등이 지난 주 발표됐다.

지난 2009년 중 국내총생산, GDP는 1천63조원으로 전년보다 3.6% 늘어났으나 달러 기준으로는 대미 달러환율이 15.8%나 상승하는 바람에, 즉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바람에 2008년 대비 10.5% 감소한 8천329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천175달러로 2008년 1만9천296달러보다 2천121달러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06년의 1만9천722달러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민총생산 GNP,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우선 국내총생산 GDP는 생산지표다. 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대개 한 해-생산한 부가가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GDP는 자국민이 생산했던 외국민이 생산했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국 영토 내에서 생산한 총 부가가치라는 점에서 우리의 국민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의 합계인 국민총생산 GNP와 다르다.

국민총소득 GNI는 소득개념이다. 지구촌 시대인 지금 수출입을 통해 외국과 교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총 부가가치 가운데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변동을 감안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하는 소득이 국민총소득 GNI 개념이다.

예를 들어 수출가격은 10%가 올랐는데 수입가격이 5%만 올랐다면 그만큼 교역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국민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국

# 지난해 마이너스 면하고 0.2% 성장

## 경제성장도 중요하나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

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문으로 들어가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2009년 국민총생산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먼저 2009년 중 국내 경제활동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도 둔화됐으나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고 연간 0.2% 성장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건설업이 증가로 돌아선 것이 특징이다.

지출측면에서 보면 설비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민간소비와 재화수출도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으나 정부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수요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4%p에서 마이너스 3.8%p로 하락했으나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p에서 4%p로 상승했다.

한편 소득측면에서 본 실질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보다 더 증가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 실질총소득은 증가

2009년 중 실질 국민총소득 GNI는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국민총생산 GDP 성장률 0.2%보다 웃도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과 반대 현상이다. 2008년 GDP는 2.3% 성장했으나 교역조건이 악화돼 GNI는 마이너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수출가격 수입가격 모두 떨어졌으나 수출가격은 1.7% 하락한 반면 수입가격이 원유 등 주요 수입상품의 가격 하락이 커서 4.3% 하락한 것이 교역조건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저축은 오늘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며 저축이 있어야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다. 작년도 저축률은 어땠을까?

미래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려면 저축률 추이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저축률은 작년 30%로 2008년 30.5%에 비해 0.5%p 소폭 하락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이 3.3% 증가

## 우리나라의 1인당 GNI

|      | 천원     | 달러     |
|------|--------|--------|
| 2006 | 18,844 | 19,722 |
| 2007 | 20,159 | 21,695 |
| 2008 | 21,275 | 19,296 |
| 2009 | 21,923 | 17,175 |



경제성장을 위해서 생산과 수출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사진은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의 각종 자동차들 모습이다.

한데 비해 소비지출이 이보다 높은 4.0%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민간 저축률은 2008년보다 상승한 23.3%를 기록한 반면 정부 저축률은 2008년보다 정부 소비지출이 느는 바람에 6.7%로 나타났다. 개인 순 저축률은 3.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국내총투자율은 25.8%로 2008년보다 무려 5.2%p나 하락했다. 이는 고정투자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기침체국면에서 재고투자를 크게 줄인 데 기인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

## 국민소득 1만7천달러

지금 우리가 2만 달러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1만7천달러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수준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UN은 1인당 하루 1달러, 연간 365달러의 국민소득을 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빈곤선을 넘어서 하루 1달러 소득 수준에 도달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두 차례 성공리에 마친 후인 1973년이 처음이다. 다시 말해 197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에 도달함으로써 빈곤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그 후 1977년 1천달러에 도달했고, 1995년 1만달러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7천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2006년부터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해서 지금 몇 년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2만달러 트랙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원화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총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달러 기준 소득의 변화는 결국 원/달러 환율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점하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이야기할 때도 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일반인 취업이 더 중요

그런데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취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해 경제 성적표는 경제성장 면에서는 선방했지만 고용창출 면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으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금년에도 성장이 5% 수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 25만 명이 달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칼럼은 오 동문이 매주 KBS 1라디오에서 방송하는 '행복한 경제코너'의 최근 방송내용을 원고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오 동문의 이 코너는 가장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 용어 해설

▶(생산지표)국내총생산(GDP valued at current prices)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해 산출하므로 명목 GDP에는 최종 생산물의 수량 및 가격 변동분이 혼재돼 있다.

▶(소득지표)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

come)

우리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해 산출

▶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1인당 국민소득, 국가 경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 국민이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 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산출(중전의 명목 GNP)한다.

▶1인당 국민소득(GNI)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하고 있다.





최용완(공대 건축과 57)

지난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아침(한국 일요일 밤) 승례문 불길은 우리 민족의 혼이 어두운 서울 하늘에 뿔뿔처럼 크게 타고 있었다. 600년 도읍을 지켜온 수문장이 제 몸을 불사르고 잠들려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아침 교회에 가려던 나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어 TV에 엉겨 붙어 있었다.

평,소리와 함께 터지는 산소 질단재 투척에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흰 연기로 바뀌고 화면이 보여주는 마지막 하얀 연기 속에서 내 젊음을 바친 승례문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있었다.

1961년 7월 건축과 졸업논문심사에 나의 한국 건축양식에 관한 발표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문화를 공부하는 일이 금지되었기에 당시 우리 세대의 선구적 노력으로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제시대 일본 건축학자 관아정의 조선건축 책자와 고유섭 선생의 고고학 자료 등을 모아 연구하며 준비했다. 대부분 동기졸업생들은 4월에 이미 졸업했고 나는 군복무기간이 끼여 9월에 졸업하게 됐다.

김형길 과장님이 심사하셨고 졸업반 김정수 주임교수는 당시 서울시 주관 승례문 복원공사의 건축자문위원장이었다.

나는 곧 7월 시작되는 현장사무소에 출근해 모교·한양대·홍익대 선배들과 승례문 실측에 종사했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석수들을 지휘하는 도편수 조원재 선생은 전통건축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현장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를 보조하는 이광규 목수 부편수와 김천석 석수 부편수가 한국에 실존하는 최고의 전통건축 기술진을 이루고 있었다.

과거 이성계는 고려의 국사에 중지부를 찍고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서울)으로 옮겨 사방에 사대문을 지어 성곽을 두르고 궁궐을 세웠다.

태조 5년(1396) 승례문을 도읍의 관문 곧 왕국의 정문으로 건립해 2년 후 완성했다. 세종 29년(1447)에 보수됐음이 실록에 기록됐으나 성종 10년(1479) 보수된 기록은 공사도중 발견된 기록에 의해 알게 됐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 보수됐음이 논의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직전(1907) 문루 양쪽 성곽을 헐어내 큰 길을 냈을 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보존됐으나 625 한국전쟁때 또한

을 맞아 부분적인 손상이 있다가 문루와 석축의 노화현상이 심해 1961년 군사정부 시절 중수공사를 감행했다.

우리나라 건축양식은 성곽 궁궐건축과 사찰건축에 가장 잘 보존됐으며 한옥 건축전통도 궁궐건축에 잘 보존돼 있다.

목조건축양식은 중국 당송시대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양식과 고려 때 원나라와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후기양식으로 나뉜다.

현존 목조 건축물 중 전기양식은 백제에서 일본에 건너간 대부분의 문화재 건축물들과 중국 산서성 도교사찰 진사의 건축물, 당나라의 도읍 서안에 산재한다. 우리나라 전기목조 건축양식은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볼 수 있으며 부분적 양식이 사찰 건축에 산재한다.

승례문 건축양식은 우리나라 후기 목조건축양식 중 가장 웅장하고 궁궐과 성곽 건축물들 중 가장 오래된 전통양식이다.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기둥

조로 진행됐다.

필자는 쉬지 않고 조원재 도편수와 새로 부임한 김정기 감독을 보조하며 해체되는 모든 부재를 하나하나 실측하고 기록했다. 조원재 도편수 덕에 투숙해 도편수와 함께 출퇴근하며 사라져가는 전통 건축기술을 이해하고 용어를 기록해 후에 건축학계에 전해줄 수 있도록 기록했다.

김재원 국립박물관장, 황수영 동국대학장, 김원용 서울대 박물관장, 진홍섭 이화여대 박물관장, 최순우 선생 등 문화재 위원들에게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다. 동기동창 여상현과 장석진의 도움을 받으며 실측도와 복원도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했다.

제도와 설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처마와 처마의 곡선을 찾아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목조건축은 건축부재들이 지붕위 개화를 비롯한 무거운 하중을 받아 차츰 휘어지게 된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에 처마곡선은 필연의 결과다.

봉였는지 등 많은 의문들이 숨어있는 국보 1호 건축물 안의 실마리를 찾아 규명하는 과정이 우리의 근원을 찾고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1963년 5월 14일 준공식에 최봉주 현장사무소장, 김정기 감독관, 조원재 도편수, 최용완 제도사등 4명은 윤태일 서울시장에게서 중수공사 공로 표창장과 금일봉을 받았다.

그때 전남 광주의 부모님이 참석하셨다. 그후 윤천주 문교부 장관은 나를 문교부 건축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철도청 산하 공무원 교육원에서 한국문화사와 건축사 강사로 일하며 25세 젊은 나이에 바쁘게 연구하며 종사했다.

교육 공무원인 아버님도 교육원에 오셔서 교육과정을 거치는 중 내 강의를 듣고 가셨다. 김정수 교수는 연세대 이공대학장으로 부임하시고 나는 건축과 졸업반에게 특강을 했다.

당시 대학원 과정이 설치돼 이경희·주남철 학생이 한국건

공식이 열렸고 화재 잔여부분 해체에 착수했다. 여기까지 발굴 및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드디어 해체실측이 진행된다.

문화재청 승례문 복구단체는 복구공사팀·실측고증팀·행정지원팀 등 3팀, 복구자문단은 고증분과·기술분과·방재분과 3자문위원팀으로 구성됐다. 2010년 해체실측을 하고 2011년에 설계하는 동안 건축재료를 준비해 2012년 건립공사, 그해 말 준공할 계획이다.

신용수 도편수는 2010년 3월 5일 KBS 아침마당에 건축팀을 소개했고 본인이 초보자 목수로 1962년 이광규 부편수의 조수로 승례문 공사에 참여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당시 조원재 도편수와 일하는 최용완 제도사를 도와주기도 했고 목수에게 도면을 읽는 일이 필연으로 느꼈을 때 최용완 제도사가 본인을 남대문 시장에 데려가 9가지 제도기 세트와 제도기구를 사주며 본인의 제도판에서 실습하도록 해준 친절에 고마운 마음 잊지 못한다며 다시 승례문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인연을 기뻐했다.

나는 아침마당 방송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인식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이 우리 앞에 직면한 중대한 과제를 감조했다.

일본은 미국 내에 130여개 전통문화공간을 건설해 전시하고 중국은 최근 30여개의 전통건축물과 정원을 설치했지만 한국은 아직 하나도 없고 빈약한 정자와 종각이 몇 곳에 버려져 있는 실정이다.

현대·삼성·LG 제품들이 Korea Discount에 밀려 한국상품으로 선전하기를 주저하기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들이 일본 제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LA수목원에 4.5에이커 대지를 얻어 서울 경복궁 비원의 부유정과 주합루를 본뜬 한국전통 문화공간을 건축하는 일에 자진봉사하고 있다.

한국의 사물놀이, 우리말과 글, 노래·춤·웃음·태권도·검도·바둑·김치담기·혼례 등 수많은 우리 전통문화에 세계가 눈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는 때를 맞추어 동포들과 2세 가족들이 문화 공연 관람 및 실습하며 체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까운 Holly Wood에서 찾아와 영화촬영하고 관광객들의 기념촬영으로 한국의 문화를 기억에 새겨주는 명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승례문에서 최근 시작된 해체실측이 끝나려면 무뎌 상부에 붙타고 없어진 부방의 자료가 필요할 때 내가 간직해 둔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 복구에 참석, 고증분과와 기술분과 위원들의 기능을 다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은 기념관에 기증해 건축 후배들이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상부를 들보로 연결하고 기둥과 지붕구조 사이에 수많은 처마와 소로를 축적해 만들어진 궁궐 구조물을 구비한 다포 양식이다.

다포의 기능은 지붕의 무게를 고르게 분배해 처마 곡선이 아름답게 조성, 오래도록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루 하부 석축은 거대한 화강암을 사각방형으로 다듬어 이를 맞춰 높게 쌓고 무지개 모양 홍예를 짓고 관문 통로를 끼웠으며 철갑문을 달아 성문이 열리고 닫는 시간을 종을 쳐 알렸다.

색깔 찬란한 단청은 붉은 색과 초록의 2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문루 중앙에 걸린 현관은 양녕대군의 친필로 전해지며 세워 쓰인 의미를 관악산 풍수에 연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성곽건축 건설기록은 화성(수원) 성역의뢰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기록돼 있다.

1961년 7월 시작된 서울시 산하의 공사관리 체계는 중단되고 1962년 3월부터 문교부 문화재 위원과 국립박물관의 협

아시아의 남방건축물들은 처마곡선이 크고 북방건축물들은 비교적 작다.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고대건축물은 처마곡선이 경직하고 후대에 올수록 곡선이 커지는 경향이다.

승례문의 처녀모양과 그 밀귀포 모양은 웅장하며 우아한 곡선으로 각 부재들이 그 기능에 맞는 예술적 표현으로 역사의 향기가 가득하다. 지붕에서 기와를 들어 내리면 크기를 기록하고 문양을 탁본해 채사용 여부를 결정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 동안 대대로 전수해 온 정교하고 안정된 예술과 기술이 승례문의 모든 부재 하나 하나에 가득해 일하는 동안 감탄을 멈출 길이 없었다.

공사 도중 발굴된 기록과 유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할 의문들을 남겼다.

예를 들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서둘러 진행된 보수공사가 이조후기 어느 때였을지,이때 조 때 건축양식이 세종 성종 때 변조되지 않았는지,지금의 우전각 지붕이 원래는 팔작지

축 관계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윤장섭 교수와도 현지답사하러 함께 연구했다.

1966년 모교와 재결연한 미네소타 주립대에 대학원과정으로 도미할 때 승례문 자료들은 부모님 덕에 남겨 두었다.

수년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림을 치우실 때 승례문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셨고 20년 후 이민오실 때 승례문 모든 자료들을 고스란히 가져오셨다. 그 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다시 20년 동안 승례문의 모든 자료는 어머니의 정성덕분으로 감사해 한다.

승례문은 불탔어도 사라진 부재들 기록이 살아 있기에 불타지 않은 아래층을 회복하고 보관 기록에 따라 율충이 회복되면 승례문은 다시 국보 1호 건장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600년의 역사가 다시 살아 후세에게 전해지게 된다.

2010년 2월 10일 이견무 문화재청장, 최중덕 건축과장, 신용수 대목장, 그리고 관여 기관장들이 참석해 복구공사 착



## 특별기고

김일훈 박사의 오바마 의료개혁&lt;4&gt;



김일훈(의대 51)

민주당 정부의 최대과제인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27일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입법을 장담했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보선에서 공화당 당선이라는 난데없이 불어 닥친 정치적 이변으로 상원 민주당은 필러버스터(의사방해)저지선(60표)이 무너져 의료개혁법안 통과가능성이 주춤했다(참조: 앞장 오바마 의료개혁-3).

이때 뉴욕타임지(1월 26일)는 사실에서 “오바마 정부서 의료개혁 포기는 큰 잘못이다. 조속개혁을 위해 현재 남은 길은 이미 통과된 민주당의 ‘상원법안’ 기득권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용하는 차선택 밖에 없다”라는 제언을 했다.

오바마는 뉴욕타임지 제언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주당이 ‘다협안’으로 통과시켰던 ‘상원법안’을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의료개혁안을 우선 법제화해 놓기로 했다(표1의 새로 시도한 단계 4).

그런데 상원법안은 60표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보수파 2명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급격히 통과시킨 타협적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지라 법안수정이 꼭 필요했다. 여기에 오바마는 ‘예산조정’이라는 전술로 의회서 과반수(상원에선 60표 아닌 51표 이상)통과로 ‘수정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작전을 세웠다.

## 예산조정으로 수정법안 통과

정치엔 매사추세츠 보선 결과처럼 오바마 이변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 이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정계에 드물지 않다. 우리가 잘 알듯,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 투표에서 1표 미달을 4사5입해서 통과시킨 정치과동이 좋은 예다.

당시 자유당은 개헌안 통가를 위해국회제석 203표의 3분의 2(135.33)인 136표가 필요했으나 투표결과 1표가 부족한 135표를 얻어 부결 선언됐다.

그후 자유당은 135.33을 4사5입해서 135로 우거 억지통과시키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미 상원에서 의사방해저지를 위한 표 수는 상원의원 100명의 5분의 3 즉 60.0이라는 정확한 숫자로 나타나니, 여기엔 한국식 4사5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

바마는 예산 ‘조정’(\*주)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상원서 과반수(51표)로 의료개혁안의 통과를 모색했다.

<\*주:예산조정 Budget Reconciliation. 예산목적을 원활히 달성키 위해 예산관련 법안에 한해 심의를 용이케 하고자 상원통과를 과반수(51표)로 해서 필러버스터를 막는 절차방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조정절차를 공화당에서도 집권당시 여러번 이용해왔다. Reconciliation Bill은 이 절차를 채용한 ‘조정법안’이다.>

여기서 필자는 오바마가 사용하려는 전술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라는 격언처럼 무보험자를 돕겠다는 오바마의 집념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해결법)로 등장했으니 그것이 바로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라 하겠다.

물론 공화당은 전적으로 반대하며 중요한 의료개혁법안에 ‘조정’이라는 불미한 전술 이용은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하리라는 논평도 있지만, 아무튼 정치는 이기고 불 일이다.

오바마는 해외여행 일정을 연기시켜가며 계획대로(표1의 새로 시도한 단계 4, 5, 6)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개혁안 통과에 전력투구했다.

특기할 일은 개혁안에서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불조항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바마는 대통령령으로 낙태보조금 지불금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3월 21일(일요일)심야에 219대 212표(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34명 반대)로 간신히 ‘상원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3월 23일 오바마 서명으로 미출하지만 1차적 ‘의료개혁법안’이 성립된 셈이다. 그후 상하원은 백악관과 민주당의원이 이미 합의한 상원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에 약간의 재수정을 가하고 통과시켰으며(3월 25일) 드디어 오바마 서명(3월 30일)을 거쳐 최종 ‘의료

개혁법안’이 성취됐다.

언론들은 이번 의료개혁법안 통과를 1934년의 Social Security Act 도입 및 1965년의 Medicare-Medicaid 도입과 대등한 역사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이자, 이 법안이야말로 “21세기의 Civil Right Act(公民權法)”라고 찬양했다. 그래서 오바마를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린든 존슨 대통령과 견줄 만한 역사적 인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의료개혁으로 2019년 이후 무보험자 3천200만 명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2천200만 명이라는 미인구의 7%는 여전히 무보험자로 남게 된다.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안은 원래 오바마가 시도하려 했던 정부관할 공공의료보험제도-Public Insurance Plan을 통한 국민개보험에서 크게 후퇴한 타협적인 법안임을 알린다. 현재 개혁안에 국론이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도 이를 시인하면서 “이번 개혁안은 정부관할 보험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일부 공화당 의견도 참작한, 기본적으로 중용적인 개혁안이다”고 말하며 반대파 협조를 유도하려고 노력중이다.

## 의료개혁의 모든 것

의회예산국(CBO)에 의하면 개혁 소요 비용은 앞으로 10년간 9천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1천380억 달러의 연방재정적자 삭감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개혁비용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고액보험에 대한 과세(케달락세금)에 의한 세입증가(참조:전회 ‘의료개혁-3’) ▶고소득자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인상 ▶메디케어 예산지출을 향후 10년간 대폭삭감(참조:전회 ‘의료개혁-2’) ▶제약사와 의료기구에 대해 부담금부과 개혁으로 의료보험소유자에게 오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를 통한 보험소유자에게 연 요금변동이 없다 ▶개적으로 구매한 보험소유자

로 연간소득이 FPL 400%(참조:표2)이하일 경우 보조금혜택으로 보험요금이 줄게 될 것 ▶개적으로 구매한 보험소유자로 연간소득이 FPL 400% 이상일 경우 저소득층 보조를 위해 보험요금이 증가될 것이다. 점진적 의료개혁으로 매년 변화가 있으나 복잡다단함으로, 시작하는 개혁초반기(2010년~2013년)와 대중 완성되는 개혁후반기(2014년 이후)의 변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개혁 초반기=▶개인이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제한액(CAP)’을 폐기한다 ▶보험사는 아동의 과거병력이나 건강상태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험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조항은 2014년부터 성인에게도 적용되며 그때까지 병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보조한다 ▶보험제공 소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부당한 처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자녀들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으로 커버한다 ▶의사선택권과 보험플랜 선택권을 보장 ▶누구나 보험으로 예방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성인불구자를 위한 ‘장기간 요양보험프로그램’을 신설 ▶메디케어 약물커버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Donut hole기간(참조 표 3)에 일정한 할인 보조금 지원을 시작해 지원액수를 점차 올려 2020년 이후엔 본인부담을 없애게 한다.

●개혁 후반기=▶보험사는 성인의 과거병력이나 건강상태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험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성인의 Medicaid(빈민보험)혜택을 FPL 133%까지 확장한다(현재는 각주마다 혜택범위가 다르며, 최고 FPL 100%까지 커버한다).

▶HHS(연방보건부)감독하에 각주 의료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치, 직장보험이나 공공보험이 없는 FPL 133~400%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보험이 제공된다. 개인이나 고용주는 이곳(보험거래소)과 다른 보험사 요금과 혜택을 비교해가면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체(고용인 100인 이하)는 고용인에 대한 보험커버를 지원키 위해 주(州)보험거래소에 참여 가능하며,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에 세금혜택을 준다 ▶고용주 혜택을 받는 보험소유자로 고용인 보험료가 수입의 9.5% 이상이거나 현재 플랜혜택범위가 60%이하일 경우, 주 보험거래소를 통해 저렴한 주(州)운영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소유를 의무화시키며(Individual Mandate) 그러지 않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단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빈민과 종교적 이유 등). 2014년도 벌금=95달러 또는 가족수입의 1%에서 많은 액수, 2016년도 벌금=695달러 또는 가족수입의 2.5%에서 많은 액수 ▶고용인 50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에게 고용인에 대한 보험제공을 의무화시키며(Employer Mandate-partial), 그러지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고용인 총수에서 30명을 제한 인원내 대해 1인당 연간 2천달러씩이다 ▶고용인지출의 보험요금은 최고 2천500달러로 제한한다 ▶조목별 납세신고자는 조정된 총 수입에서 10%이상의 의료비용만을 세금공제하게 한다(현재는 7.5% 이상) ▶새로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무보험자 3천200만 명의 보험료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인당 평균 6천달러가 소요될 예측이다.

## &lt;표2&gt; 빈민레벨(FPL100%)가이드 라인(2009-2010년도, 단위 달러)

연방정부서 빈민레벨로 책정한 연간수입액을 FPL 100%(Federal Poverty Level 100%)라하며 가족수입이 FPL 100%미만이면 빈민층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2009-2010년도)4인가족일 경우 연간수입 \$22,050(FPL 100%)이하면 빈민이다. FPL 400%는 수입이 FPL 100%의 4배를 뜻하며, 4인가족일 경우 수입은 \$88,200이다. FPL 133%는 FPL 100%의 1.33배다.

| 가족수 | FPL100% | FPL150% | FPL200% | FPL300% | FPL400% |
|-----|---------|---------|---------|---------|---------|
| 1   | 10,830  | 16,245  | 21,660  | 32,490  | 43,320  |
| 2   | 14,570  | 21,855  | 29,140  | 43,710  | 58,280  |
| 3   | 18,310  | 27,465  | 36,620  | 54,930  | 73,240  |
| 4   | 22,050  | 33,075  | 44,100  | 66,150  | 88,200  |
| 5   | 25,790  | 38,685  | 51,580  | 77,370  | 103,160 |
| 6   | 29,530  | 44,295  | 59,060  | 88,590  | 118,120 |
| 7   | 33,270  | 49,905  | 66,540  | 99,810  | 133,080 |
| 8   | 37,010  | 55,515  | 74,020  | 111,030 | 148,040 |

## &lt;표1&gt;의료개혁 실현 단계

|                   |                        |
|-------------------|------------------------|
| 완료된 단계            | 5.상하원단일안 투표→           |
| 1. 의회분관위원회 심의→    | 6.대통령서명                |
| 2. 민주당 원안 하원 통과→  | 새로 시도한 단계              |
| 3. 민주당 상원타협안 상원통과 | 4. 하원서 상원법안 통과→        |
| 4. 상하원단일안 합의→     | 대통령서명(1차적 의료개혁법 성립)    |
|                   | 5. 하원과 상원서 수정법안 통과→    |
|                   | 6. 대통령서명(최종적 의료개혁법 성립) |

## &lt;표3&gt;2010년도 Medicare PartD 약값 지불

2010년 현재 Medicare(노인보험)의 Part D(약값플랜)를 통해 사용한 약값의 75%가 커버되며, 약값 총액이 \$2,830(Initial Coverage Limit)에 달하면 그때부터 \$6,440(Catastrophic Limit)에 이르기까지 약값 \$3,610(6,440-2,830)은 보험커버 없이 전적으로 본인부담이다. 그다음부터는 사용하는 약값의 대부분(95%)이 커버된다.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커버 공백기(Coverage Gap)’를 Donut hole이라 속칭한다.

| 영여호칭(사용한 약값) Initial Coverage  | 본인부담 공제액(\$310)과 사용 | Medicare커버 사용한 약값의 75% |
|--------------------------------|---------------------|------------------------|
| Coverage Gap=Donut             | 사용한 약값의 25% 모두 본인부담 | 커버 없음                  |
| Catastrophic Limit (\$6,449)이상 | 약값의 5%              | 사용한 약값의 95%            |



회고록

출애급 'Exodus-2'

# 일엽편주 3일야

## 창랑(滄浪)만리 동해의 축복



이용락(공대 48)  
제6대 회장

이 글은 집필중인 나의 회고록의 일부로 본 동창회보 제 190 호(2010년 2월호) 게재분의 속편임.

북조선 함경북도 성진(城津) 부근에 있는 나의 외가 마을 일신(日新)에서 우리 가족이 남의 눈을 피해 떠난 것은 1946년 7월 중순 한낮이었다.

북조선을 탈출하기 위해 북조 발동선에 몸을 실었다. 배에 올랐더니 우리 가족 말고 선원 아닌 다른 몇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발동선이 일신까지 와서 우리 가족을 싣고 북조선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계획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나는 모른다. 당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물을 용기가 없었다. 다만 무사히 남조선으로 갈 수 있기만을 바랐을 뿐이었다.

나는, 8.15 해방이 돼 만주 요양에서 길림으로 돌아온 그때 조선인 중학생이었다.

당시 주변에서 듣고 그후 밝혀진 바로는 당시 세상 돌아가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제 2 차대전 이 끝나갈 때부터 전개된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과 소련이 대일본전의 전리품 분할 각축장이 됐고 남한과 북한에는 두 강대국에 각각 우호적이며 종속적인 체제(client regime)가 출현해 상호 이질적이며 적대적인 이념에 바탕을 둔 한반도 분단체제의 태동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은 기습적으로 대일본전을 선포해 만주에 진주했다. 이어 Ivan M. Chistiakov 대장이 이끄는 4 만명의 소련정예군은 8월 9~10일 용기·나진·청진을 통해 북조선에 진주, 강원도와 황해도를 거쳐 8월 26일 평양에 입성했다.

김일성(1912.4.15~1994.7.8)은 1945년 9월 19일 소련군 대위(또는 소령)로 북한에 출현했다. 미군은, 일리노이 남부의 농촌지역 출신인 Hodge 중장이 이끄는 MacArthur 총사령

관 직할 부대인 미군 제 24 군단이 오키나와로부터 9월 8일 인천에 상륙해 다음 날 서울로 입성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박사(1875.3.26~1965.7.19)는 1945년 10월 16일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미군용기편으로 McArthur 원수 점령하의 일본 동경을 거쳐 서울로 왔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당시 몰 밑듯이 남하할 수 있는 기세였던 소련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감안한, 미국의 제의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맡는 것으로 양해돼 진행되고 있었다 한다.

지난 회에서 언급한 대로 만주중학교 강당에서 강연했던 중국인 북장의 젊은 조선인은 공산주의 빨치산(Partisans)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소련군 수중에 떨어진 북위 38도선 이북의 북조선에서는 1945년 8월 30일 남평양 인민위원회(Soviet)가 당시 북한에서 존경받던 기독교인이며 민족 교육자였던 조만식(曹晩植 1889~1950)선생을 포 함 해수령했다.

그러나 곧 민족주의자들은 그 해 말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로 나온 한

반도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자, 조만식 선생을 1946 1월 가택연금 후 제거(1950년 UN군의 북조선 진격을 계기로, 인민군이 평양을 철수할 때 살해)하고, 1946년 2월부터 '항일투사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는 빨치산 세력이 마각을 드러냈다.

한편 중공군 팔로군에 소속돼 항일투쟁하던 '연안파 그룹'은 해방후 무장해제한 채 압록강을 건너와 무력화 됐다. 그 결과 김일성 체제가 등장해 소련군의 뒷받침으로 실제로 북조선의 지배세력으로 굳어져 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때, 지금 북조선을 탈출하다가 도중에서 잡히는 경우를 가상해보면 그 위험은 너무나도 크고 무서웠다.

만주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기거하던 5촌 아저씨의 "제 2차대전 종전 직전에 소련군의 만주침공이 있었다"는 논평

을 들은 빨치산들이 아저씨를 암살하려 했고, 그랬더라면 우리 가족도 필시 살해됐을 지 모른다.

그러한 생각이 오가는 동안 배는 떠났다. 그 순간에는 혹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북조선의 빨치산 경비원에게 말각돼 반동분자로 몰리지 않기만을 바랐다. 선장은 말했다.

"발동선의 크기는 18톤이며 조타실에 있는 나침반이 바다에서 우리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장비다."

'이 배가 해안선을 따라 항해한다면 북조선 빨치산에게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선장은 "어른(아버지)에 의해 이미 계획된 바로는, 이 배는 공식적으로는 성진을 떠나, 명태를 함흥(咸興)으로 반출



최근 탈북자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남한으로 타고 온 목조 발동선이다.

하는 선박으로, 일신에서 명태를 더 적재하고 함흥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실은, 우리는 바로 남조선으로 직행한다"라고 했다.

그제서야 나도 우리 배가 해안선을 따라 항진하지 않고 점점 해안선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를 알게 됐다.

출항후 몇 시간이 지나자 사방 어느 곳에서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만하면, 북조선 치안대가 도저히 쫓아올 가능성이 없는 공해상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제사, 우리는 일단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선장에게 물었더니, "배의 속력은 시간당 5 노트이고, 남조선까지 항해시간은 약 3 일이다"라고 했다.

선장의 예정 항로는, 우선 공해로 나가서 일단 위도 38도선을 넘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육지로 향해 남진하

는 것인 듯 했다.

사방이 푸른 물 밖에 보이지 않는 잔잔한 바다를 "통 통 통 ..." 하는 엔진 소리를 내면서 동해의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배 안은, 유람선을 탄 듯이 참으로 유쾌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맑은 하늘이라 바다는 거울같이 맑고 잠잠했다. 평평한 수면을 달리는 우리 배는 매우 경건한 구조물 같았고, 우리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실어다 줄 것 같았다.

큰 고래 무리들, 비어(飛魚)들, 이름 모를 큰 고기들이 떼를 지어 수면 위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장관이 계속됐는데, 나로서는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다. 참으로 이름다운 창랑(滄浪)만리 동해 물결이었다. 또한 배 안에는 출발 전에 실은 쌀·생선·소고기·김치·된장·간장 등으로, 우리는 끼니마다 즐겁게 식사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 나의 마음 속에는 "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조선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맴돌았다.

만주에서 8.15해방을 맞이한

왔던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박사 만세, 김구 선생 만세" 등의 현수막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본 "미제국주의", "무산계급(無産階級)의 투쟁" 등을 외치는 사람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혁명적인 어떤 새로운 사상에 도취된 듯이 보였던 중학교 급우들, 또 북조선에서 듣고 본 "김일성 장군, 인민 해방의 영웅" 등의 구호 속에, 임정 요인들에 대한 찬양구호는 듣지도 못했고,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던 사실 등이 떠올랐다.

빨치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폭력적 사고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는 아랑곳없이 '무산계급'의 무자비한 독재만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그 순간 문득 나의 돈화(敦化)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그 때 아버님은 화물과 여객운송업을 하셨던 덕택에 나는 남들이 부러워 하는 특혜들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 집은 벽돌집이었고 나는 좋은 양복, 좋은 가죽 구두, 현대식 스케이트 등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급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 진신'이라는 아이였다.

그 친구 부모는 농부였던 것 같다. 그의 집은 큰 말 한가운데 있는 오막사리였다. 그의 옷은 무명바지와 저고리에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나는 이 친구가 제일 좋아서 자주 그 아이 집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 아이와 노느라, 시간가는 줄도, 밤이 늦어지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밥을 잘 먹고 있을 때, 멀리서 "용락아!" 하는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은 내가 행방불명이 돼 사방으로 찾다가, 결국 이 친구 집 부근까지 오셔서, 감감한 밤중에 행여나 하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 순간은 지금도 뇌리에 뚜렷하다.

이진신은 분명히 무산계급의 아이였다. 만약 나의 가장 다정했던 그 친구가 8.15 해방을 맞아 갑자기 "너는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반동분자야!" 하고 나를 몰아세웠다면, 얼마나 황당했을지를 상상해보았다.

이진신이처럼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많았던 초등학교 시절, 나는 이런 아이들과 잘 어울려 함께 놀기 위해 내가 가진 최신형 스케이트를 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졸라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것(단면이 3 각형 나무에 그 한 모서리에 강판을 박고 끈으로 신발과 함께 매는 것이었음)을 타곤 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가족구두는 질대로 신지 않고 운동화만 신었다. 어머니는 늘 나의 친구들이 집에 오면 계란요리 등으로 대접하셨다.

< 10페이지에 계속 >



## 칼럼

## 가장 성공적인 햇볕정책



이명일(문리 58)  
한국 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 회장

한국의 콩이 아프가니스탄의 식량이 되고 있다. 원래 콩이라는 식물이 없던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콩이 소개, 이식됨으로써 아프간의 식량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식품관리학을 전공한 권순영 박사는 2003년 25년간의 외침과 내전으로 영양불량이 최악으로 치달아 유아사망률과 임산부 출산시 사망률이 세계 최고로 높은 아프간을 찾아가 한국산 5종의 콩 품종을 아프간 일부지역에 이식해 보았다. 이중 3개종은 생장이 아주 빨랐고 2개 품종은 보통 수준으로 자랐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권 박사는 2006년부터 한국의 기독교선임인단체인 '세계로 CBMC'와 제휴하고 미국

# 아프간 살리는 콩이름은 우리말 '콩'

NGO단체들의 협력을 얻어 2004년부터 아프간 일부지역에서 콩 농사에 착수했다. 이 시도가 성공, 아프간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후 금년부터는 아프간 34개주 중 탈레반의 영향력이 강한 3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만명의 아프간 농부들에게 콩 씨앗을 나눠주고 콩 농사교육을 시켜 콩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아프간 정부가 콩 농사를 전국적으로 권장하려면 정부 작물시험장에서의 2년에 걸친 실험성공이 전제되지만 현재 실적으로는 내년부터 한국품종의 콩이 식량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는 콩의 영어표기인 'Soy Bean'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한국식 표기대로 '콩'이라 부르면서 두유, 밀가루에 콩가루를 9대 1로 혼합한 '난(Naan)'이라는 주식 빵 등을 생산, 보급한 결과 임산부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고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병색이 걷히고 체중도 늘었다.

콩 1톤을 심어 40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콩 농사는 아프간 농민들에게는 재산이 맞는 사

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프간 토질은 수분이 적은 탓에 양귀비가 잘 자라 마약을 많이 생산하는 병폐도 있지만 그런대로 콩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콩이 새로운 식량원의 구실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의 납치살인 사건으로 한국인의 아프간 출입이 막힌 상황에서 권순영 박사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을 중심으로 NEI(국제영양교육기구)를 조직해 아프간 콩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권 박사를 돕기 위해 한국에 아프간 유학생 12명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있는 한국 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와 세계로CBMC가 조직을 통합하고 두유생산, 콩 방앗

→이명일 동문(가운데)이 지난 2003년 아프가니스탄 방문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과 환담하는 장면이다.

간 설치, 파종할 콩 씨앗 조달 업무를 지원하기에 나섰다.

현재 살균 두유시설은 두 지역에 세워졌다. '세계로 CBMC'가 수도 카불에 세운 한국식의 전통 콩 방앗간은 아프간인들에게는 새로운 관광거리가 됐다.

지난 2월 25일 우리 국회는 아프간 파병을 결의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한국군은 전투 목적 아닌 건설과 의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이미 바그람 기지에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파병지원

도 중요하지만 아프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영양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콩 농사 지원사업도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프랑스의 후쿠야마가 말한 바 있는 가장 성공적인 햇볕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콩 농사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꽃피어 파병장병들의 작전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글은 연우포럼에 실린 이 동문의 글을 전재한 것임>



< 9페이지에서 계속>

그런데, 종전 후 어느 날 갑자기 새 세상이 됐다고, 그 학우들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자본가 계급의 불순분자로 몰았다면 나는 어찌 했을까?

나에게는 이런 세상은 분명히 비인간적 사회고, 나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있는 남녘행 이 길은 무엇인가? 무엇하러?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남조선에 가서 있을 법한 어떤 뚜렷한 이득은 아직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거의 백수로 미지의 '남녘 간도'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이 길은 분명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인간 본연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확신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음은 물론이다.

일신을 떠난 후 3일간은 방방 동해의 공해상을 통해 남진해 가는 동풍배는 맑은 하늘에 바람 한 점 없는 바다를 순항하고 있었다. 그동안 뱃전을 지나는 많은 큰 고기들을 보았다. 간혹 뱃전을 지나가는 어떤 고래는 그 덩치가 우리 배보다 더 큰 것 같았다. 다행히 이들은 우리 배에 위협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오늘만 지나면, 선장의 예측대로라면 38도선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는 때

였다. 아마도 선장은 그 다음날 초 새벽쯤 되면 우리가 38도선을 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려고 했으리라.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쓸쓸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바람도 점점 거세졌다. 파도도 더 높아졌다. 갑자기 기후가 돌변한 것이다.

그 때까지 아늑한 요람같았던 우리 배는 극심한 요동으로 출렁였다. 파도가 점점 거세져 큰 파도의 끝짜기와 능선에서 가냘프게 춤추는 그야말로 일엽편주(一葉片舟)가 됐다.

그 때 선장은 "이제 우리는 38선 이북에 있는지, 이남에 있는지 분간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록 38선 이북에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급한 때가 오면 배에 실린 모든 적재화물을 바다에 던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결연히 말했다. 조타실에 있었던 나는 그 초조한 마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 때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 때까지 한번도 교회나 다른 예배당에 가 본일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 속에는, 나의 첫 기억인 어린 6살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항상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다. 어릴 때 허약하게 태어난 나불(튼튼하게 태어난 다른

형제가 나의 기억 속에 없을 정도로 먼저 병사) 녹용이라는 신비한 약으로써 나를 구출하시고, 몇 번 죽음의 위험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게 하신 기억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호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급해진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보호해주셨습니다.우리 가족은 지금 새로운 자유의 세계를 찾아서 남조선으로 이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양심에 따라 살겠습니다.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소서!"

눈에는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간절한 기도였다. 우리 배는 이제 파도의 노리개가 돼 그 마루와 계곡에서 춤 추고 있었다. 배의 앞과 뒤에는 깨어지는 물벽만 보인다. 목조선이라 드디어 배는 떠져 떠져하는 소리를 여기 저기에서 내면서 파도골에서 간신히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완전한 암흑이라 어느 방향으로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새벽 2시쯤 된 시간이었으리라. 조타실에 있던 나는 앞 방향에서 불빛을 하나 보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등불이다!"

파도는 여전했으나 이제 한가닥 삶의 희망이 보였다. "육지까지만 도달하면 생명은 건질 수 있으리라!"

잠시 후 불빛 여럿이 더 보이기 시작했다. 선장은 "항구가 틀림없는 것 같으나 아직 어느 항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근심 어린 목소리였다.

항구에 거의 다 도착할 때까지 파도는 여전히, 아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여간간 우리는 간신히 그 포구로 들어가 부두에 정박해 있던 큰 배 옆에 배를 대었다.

그 배에 밧줄을 걸고 밧줄을 새웠다. 그날 파도는 하도 극심해 항구내에 정박했지만 배는 밤새 비 바람 속에서 상하로 6자 정도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는 뜬 눈으로 밧줄을 새웠다.

아침이 되니 그제사 파도가 가라앉고 비도 멎었다. 부둣가 사람을 향해, 선장은 "여기가 어디입니까?"하고 소리친다.

"묵호(墨湖)요"라고 선창가에 선 사람이 맞고함친다.

그제사 선장은 "우리는 드디어 38선 이남에 도착했다!"라고 외친다.

그 때의 감격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듣자 하니, 간밤에 100톤급 여선이, 심한 파도로 침몰했다. 우리의 묵호 도착이 30분만 더 늦었다면 18톤 밖에 안된 우리 배는, 물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바다 속으로 침몰했고, 우리 온 식구는 수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 이후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다시 남쪽으로 계속 항진했다. 이윽고 목적지인 포항(浦

項)에 도착해 하선했다. 여관에서 처음 고래 고기도 맛보았다. 처음으로 미군병사를 보았는데 이들은 소련군인들 처럼 파발총(多發銃)도 휴대하지 않고 순하게 보여 안도했다.

머칠 있다가 목격지인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당시 포항에는 호열자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검역에 합격해야만 서울가는 기차표를 살 수가 있었다.

이 검역을 마치기 위해 포항에서 예정보다 좀 더 머물렀다. 다행히 우리 모두 검역을 통과해 약 1주일 후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이미 아버지가 장만해 둔 황금정 3정목(黃金町 3丁目 지금의 을지로 3가)의 집을 찾아갔다.

그 때 그 집을 지키던 관리인은 우리가 언제 남조선으로 내려올는지 모르므로, 부엌이 달려 있는 반쪽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있었다.할 수 없이 우리 식구는 부엌도 없는 반쪽집에서 고단한 삶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무서우랴! 우리는 아름다운 풍요의 물길 동해에 펼쳐지던 비어들의 무도를 보며 유람선의 순항도 했고, 폭풍우의 노리개가 된 일엽편주를 타고서도 죽음의 권세에 이기지 않았던가?

이제 새로운 땅 '남녘 간도(間島)' 자유의 남조선에 무사히 안착하지 아니했는가?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 기 고

## 건축가의 사명



김경일(공대 건축과 58)  
University of Illinois  
교수·건축학 박사

인간의 모든 의식적 행위는 중요한 공통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종류와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작게는 가족의 저녁식단을 짜는 것부터, 크게는 국채의 발행이나 세계평화를 위한 방대한 계획을 꾸미는 것까지가 모두 그러하다. 계속 추론해보면 크고 작은 모든 목적들은 결국 동일한 하나의 궁극적 목적에 귀납하게 된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다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의식적 행위는 복지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며, 따라서 그러한 방법으로서만 그 의미가 있고, 아울러 그러한 의미에서만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누구의 복지향상이 올바른 목적이나,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많은 철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이 돼 왔을 만큼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사회가 믿고 그 앞날을 맡기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그들의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복

지향상이 그 전문 활동의 목적이 돼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복지향상의 궁극적 목적을 좀 더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유사한 행동 Pattern 과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체계화 하고 연구해 왔으며 그것이 결국 여러 전문분야로 발전하게 됐다. 의학이 그러하고, 공학이 그러하며 또 법학이 그러하고, 모든 전문분야가 다 그러한 것이다.

건축도 그 중의 하나다. 건물은 우리가 원하는 많은, 또 느끼는 못 느끼는,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은 그들이 건물이라는 수단을 매체로 전문 활동을 하는 한 그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절실한 의무를 통감해야 하며, 또 그것이 그들의 활동 목적이 돼야만 한다.

건축가들은 의식하든 안하든 사실상 건물을 넘어 삶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건물을 넘어 삶을 설계해야만 한다. 그리는 한 줄 한 줄마다 그에 얹힐 수많은 인생의 고뇌와 희열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노심초사하며 설계해야만 한다.

젊었을 때 가버렸던 내 연필이 이제는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즐겁다. 그 속에 비치는 수많은 밝은 인생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삶을 설계하는 삶. 나는 나의 그러한 삶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굳게 믿는다. 건축가의

사명은 건물을 넘어 삶을 설계함(사실 이는 모든 전문직의 궁극적 사명이라 하겠다)이며, 건물은 오직 그 방법으로 서만 설계돼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외롭다. 나의 이러한 건축관(觀)은 조형과 의장이 그 목적인 양 그에 집착하는 건축계의 전통적 관념과는 참을 수 없도록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고, 조형과 의장은 더 나은 건축을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거늘, 어찌 방법을 위한 방법이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손자가 그 할아버지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물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거의가 이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정도(正道)는 승리를 장담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의 학자적 투쟁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나는 싸워야 한다. 나는 그 투쟁이 나의 사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지동설(地動說)을 입증한 Copernicus 는 그 주장을 감히 펴지 못했고, 그를 따른 Galileo 는 파문(교회에서 내침)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Darwin 은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놀림을 당했던가? 그러나 역사는 증명한다. 정도의 궁극적 승리를.

나는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끝나기도 전인 1977년, Harvard 대학 설계대학원의 조

교수 직을 받았다.

오래 전에 타계하신 내 스승님은 설계이론의 대가셨는데, 그분께서는 'Harvard는 나와 Philosophy 가 너무 달라서 나를 외롭게 하고 또 내 뜻을 펼 수도 없는 곳' 이라고 극구 만류하시며 자기와 함께 Berkeley 에 남아 있으라고 하셨다. '헐기 왕성했던 나는 한국말에 "호랑이도 굴 속에 가야 잡는 다는데 그럴수록 제가 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했다.

스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잘해 보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때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었다.

조교수 생활이란 워낙 힘든 것이지만 조교수를 물 갈듯 가는 Harvard의 경우는 바늘방석이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

비상한 노력 끝에 나는 다행히 보통 6년 걸리는 부교수 승진을 4년만에 따냈지만 그동안 정말 조마조마 했다. 승진한 사람은 오직 나 하나. 그동안 7명의 조교수들이 잘렸거나 지레 겁을 먹고 미리 떠났다.

그러나 승진 후에는 오히려 더 힘들어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됐다. 4년 전 스승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건축계의 전통적 관념은 대개 조형과 의장 치중인데, Harvard 등 동부 학교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더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오류를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거센 역류를 나 홀로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임을 느꼈다.

다시 한 번 스승님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며 내 뜻을 펼 수 있는 중부의 건축 1위인 명문 University of Illinois 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모든 학교가 그렇듯 Illinois 대학에도 그 전통적 관념은 강했다. 그래도 내 주장을 펴고 터를 닦을 만은 했다. 4년 만에 Integrative Design 이라는 2년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나의 설계관을 펴기 시작했다.

하늘이 도왔는지 학생들의 호응이 대단해 등록 수는 일로 상승, 결국 매년 총 대학원 학생 수의 3분의 1인 30~35명이 나의 Program 에 몰리게 됐다. 그것도 추첨으로 추린 결과가 그랬으니 바쁘기는 말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감사하기 그지 없었다.

그 결과 과거 20년간에 올바른 가치관과 탁월한 지식을 겸비한 500여명의 우수한 건축가들을 배출했으니 그 개개인이 모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줄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가 그지없다.

돌이켜 보면 나는 어려서 '건물을 만드는 사람' 이 되고자 길을 떠났는데,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사람' 이 됐다가 이제는 다시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 이 됐으니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으랴. 그러나 어쩌리. 지금까지 한 일은 크나큰 바닷가의 한 줌 모래도 안 되니!

오늘도 하늘에 감사하며 너무나 역센 격류와 또 싸워야 할 내일을 준비한다.

### <3페이지에서 계속>

신라 진흥왕 때 화랑오제가 설정된 이후 1천여 년 동안 싸움에 나가는 장수의 덕목으로 입전무퇴를 가르쳤지만 헛된 구호에 불과했다.

이순신은 원균의 칠천량 전멸 후 전투선이 없어 해전을 할 수 없으니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편입하라는 임금의 유시를 받고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尙有十二) 해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꾸로 임금을 설득해 그 초라한 선단으로 노도 같은 133척의 일본 선단을 명량에서 무찔러 세계 해전사에 불가사의한 10대 1의 대첩을 이룩했으나 실행주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 셋째,깊이를 모르는 겸손

이순신 인격 완성의 결정적 요소는 단연 해아리기 어려운 한결같은 겸손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된다.

공은 이 마음가짐으로 온갖 계층의 민초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을 받아 국민통합의 리

더심을 발휘해 처절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적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는 장수의 본분인 어적보민(禦敵保民)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이 누구인가? 거북선이라는 방탄 장갑함을 개발해 일본군이 자랑하던 조총을 일거에 무력화시킨 분이다. 일본 선박이 나약하고 우리 조선의 선박이 크고 강인한 체질의 차이를 제빨리 간파하고는 배와 배를 부딪혀 격파하는 당파(撞破)전술을 즐겨 쓰던 피돌이다. 명종대에 대형화 된 판옥선에 화포를 14문까지 장착해 막강화력을 바탕으로 본격 함포해전의 효시를 이루고 사납고 거칠기로 이름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을 지략과 명분으로 압박 설득해 명나라 병사의 군벌권을 확보해 형포를 잠재운 외교수완가였다. 혼란의 와중에 일본군의 앞잡이 간첩으로 나선 칠없는 백성들을 '해로통행첩'이라는 패스제도를 만들어 방첩과 함께 수수로 군량을 확보한 행정수완 등 헤아릴 수 없는 천재적 지략의 소유자가 아니던가.

당시 조선의 군사 조직 중 가

장 질이 낮은 뱃사람으로 구성된 팔영꾸러기 집단인 수군진영에 뛰어들어 스스로 몸을 낮추어 군중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조선 최고 상층무패의 강군으로 육성된 바탕에는 바로 겸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개전 이후 승리를 거듭해 품계가 가선, 승록으로 오를 때의 일기에는 '공은 없는데 이름만 난다' 고 민망해 하시는 대목이 보인다. 이처럼 이순신의 겸손은 지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에 살아 있는 교훈이며 인격 완성의 표본이다.

### 이순신의 장검

조형미가 뛰어난 이 한 쌍의 장검은 칼의 길이가 키를 훨씬 넘는 197.5cm며 각각의 무게가 4.3kg에 이른다. 칼날의 양면에는 아래와 같은 이순신의 검명(劍銘)이 나누어 새겨져 있고 손잡이를 뽐아보면 한산장에서 이 칼을 만든 두 대장장의 이름인 太貴遠·李茂生이라고 각각 새겨져 있어 이순신의 기개와 도량의 크기, 대장장이의 이름마저 귀하게 여기는 이순신의 민권의식이 함께 고

스란히 배어있는 명품임을 알 수 있다.

'三尺蒼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석자 장검으로 하

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떠는 듯 하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 기고

## 춘원(春園) 이광수와 현대 정신의학의 발전

심리현상과 인체 호르몬  
관계를 공상적으로 연결

강창욱(의대 55)  
cwkwang@comcast.net

내가 처음으로 우리 말 소설을 읽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였다. 이것이 인연이 돼 나는 이광수의 소설을 좋아하게 됐다.

수십 년이 지난 근년 잡지나 신문, 인터넷에 이광수에 대한 글이 나오면 여러 편이 따라다니는 것을 본다. 그를 민족주의자라니, 친일파니 하는 사상적 편이 나를 자극했다.

이광수를 평한 많은 글들이 마치 소경 코끼리 더듬는다는 군맹모상(群盲摸象)격이다. 아니면 각자위정(各自爲政)이라고 할까.

그러나 나의 시선을 끈 것은 소설 '사랑'에서 주인공 '안빈'이라는 의사를 통해 심리현상과 인체호르몬(Hormone)의 관계에 대한 것을 공상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소설을 다시 읽기로 마음먹었다.

정신의학도로서의 직업적 호기심 때문일 것이다. 60년 전에 읽는 등 마는 등 해서 기억에 막연히 편선증(癲癲症)의 줄거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에로틱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희미한 기억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압박에서도 우리 글을 지켜 해방 후 금방 우리 말을 배우고 곧 그런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늘 감탄스럽게 여겨왔다.

춘원이 소설을 쓰면서 신문학자(新文學者)중에서도 어려운 고어를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일상어 혹은 통속어를 유연하게 씀으로서 마치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1265-1321)가 쓴 신곡(神曲 La Divina Commedia)을 읽기 쉬운 이탈리아인 고유의 일상어를 씀으로서 이탈리아 국민에게 이탈리아어라는 글을 선사해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문맹에서 해방시켜 언문일치(言文一致)를 성취했다는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 말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고맙게 여겨왔다.

그러던 중 반세기 가깝게 지켜온 내 천직 때문에 심리현상

과 호르몬이라는 것이 관심을 끌게 돼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는 뇌신경생리학의 측면에서 춘원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는 궁금증이 강박처럼 나를 사로잡았다.

우선 '사랑'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주인공인 순옥이라는 미모의 명철한 여성이 안빈이라는 문학가를 사모했다. 안빈이 개업하자 순옥은 안빈의 간호사로 취직해 사모하는 사람 곁에서 일하게 됐다.

그녀는 유부남 안빈을 사모하는 것이 남녀간의 애정이 아니라 숭고한 영적 사랑이라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에게 집착해 애정을 고백하는 허영이라는 남성과 결혼한다. 그녀는 남편과 그 자당의 탐욕스럽고 이기적 처사로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도덕적 의무를 지킨다.

한편 그녀는 안빈에 대한 사모를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춘원의 인생관, 즉 예수와 석가여래의 숭고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방도로 표출했다.

안빈은 그러한 사랑을 하면 혈중에 아우라몬(Auramon)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학설을 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애정과 관계된다는 옥시토신(Oxytocin)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안빈이 발견한 호르몬에 아도

파에 대해 아직 탐구가 불충분하며 생리학·정신과학 교수들이 심히 냉랭한 것은 의외다' (문학과지성사 2008판 '사랑' 한승욱 편집)

춘원이 '사랑'의 머릿말에서 이 소설 속에 자기의 인생관이 실려 있다는 것을 표현했음으로 안빈이라는 주인공을 대두해 자기의 괴로움과 심리학·정신생리에 깊은 관심을 표현한 것을 직감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춘원 자신이 결핵으로 고통받았으며 간병을 위해 해주(海州) 결핵요양원에 입원했다.

'사랑'이 출판된지 14년이지난 1952년 의학계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이프로니아지드(Iproniazide)가 이소니아지드(Isoniazide; INH)와 함께 결핵치료제로서 효력이 분명하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그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결핵의 고통을 겪고 결핵에 걸리면 죽음을 예측해야 할 만큼 불치의 병으로 여겨 왔다.

따라서 결핵환자에게 오는 우울증은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가듯 한 것이 상례였다.

한편 우울증으로 고생한 환자들은 폐결핵에 감염되는 수가 흔했다. 위의 두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결핵에서 치유될 뿐 아니라 우울하던 환자들이 쾌활해지는 것을 보게 됐다.

미주총부의 학회(American



소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라는 사실이 판명됐고 이것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곧 알려지게 됐다. 처음으로 우울증을 현대적 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정신의학, 아니 의학역사상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결핵과 우울증이 뗈 수 없는 상호관계가 있고 또한 이것이 많은 문학과 예술작품에 나타난 것 또한 주지하는 바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예술 작가 자신들이 이러한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춘원이 이 문제로 인해 한탄

돼 정신의학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지금은 더 발전돼 식품에 대한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극히 적은 소위 깨끗한 약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Prozac이나, Lexapro 같은 것이 그 예다.

정신적 감정과 관계가 깊은 뇌신경전달(Neurotransmitter) 물질의 모체가 카테콜라민(Catecholamine)이고, 이 물질의 분해를 방지해 뇌신경세포의 연결부(連接部) 시냅시스(Synapse)에 뇌전달물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치유하게 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뇌생리학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 지면에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다. 2009년 전 세계의 인구 중 적어도 1억 2천만 명이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고 항 우울증제(Antidepressants)의 판매가 1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춘원이 기독교나, 동양 종교, 특히 불교를 공부하듯이 의학을 공부했었다고 보면 당시 의학 발전상태를 주시하고 정신의학의 앞날에 대한 통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AOI가 발견되기 14년 전에 안빈, 아니 춘원이 고민했던 결핵의 치료와 동반하는 심리적 문제가 한 가지 종류의 약품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춘원이 갈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하루 속히 의학자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춘원이 남북되지 않고 이러한 의학의 발전을 목격했다면 숭고한 사랑을 위해 정진했던 이 현대문학의 거봉(巨峰)이 얼마나 통쾌했을까 상상해보니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그 분의 문방(文望)의 전경(全景)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보니 그 분이 다만 우리나라의 큰 문호로 보일 뿐이다.

소설의 주인공 '안빈'의 박사 학위 논문  
중 애정과 관련된 아우라몬 호르몬 등은  
오늘 날의 옥시토신 등과 너무나도 흡사

로젠(에로틱한 사랑을 할 때 분비), 암피노톡신(격분할 때 분비)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심리적 현상과 체내 호르몬의 분비와 연관성을 공상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안빈이 의사가 된 이유와 폐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음을 괴로워했다. 안빈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그 심리학적 전제를 이렇게 말했다.

"(1)폐질환자의 정신작용이 항진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2)정신작용 중에 가장 신체의 조직, 따라서 일반 건강, 따라서 투병력(鬪病力)을 소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고작용인가, 감정 활동인가? (3)그러면 그 양분된 정신을 억압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의학적 심리학적 문헌을 모두 읽고 감정 내지 정서활동과 그 생리학적 결

College of Chest Physician)의 학회지 체스터(CHEST;胸部) 1954년 판에 '이소니아지드와 이프로니아지드에 의한 폐결핵 치료(Treatment of Pulmonary Tuberculosis with Isoniazide and Iproniazide, by Samuel Cohen and Eriberto Ang)'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약품들로 병이 호전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심리적 호전(Subjective Improvement)'이라는 항목을 삽입해 '일반적으로 행복감과 정력의 호전이 85퍼센트의 환자들에게 나타났다(Improvement in general wellbeing and energy and vigor was observed in 85% of the patient)'고 했다. 이는 극적인 심리적 호전을 보았기 때문에 예외로 이것을 덧붙여 발표했다고 본다.

이 약품들이 단가아미노산 효

한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질환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신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약품이 발견된 후 곧이어 마시리드(Marcilid), 네루실(Nerusal), 푸록손(Fuloxone) 등 약 스무가지의 이프로니아지드를 바탕으로 한 항우울증제(Antidepressant)가 폭발적으로 시판됐다.

그러나 대부분 심한 부작용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Parnate·Nardil·Marplan 등은 처방하고 있다. 이 약을 복용하자면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해묵은(Aged) 와인(Wine)과 치즈(Cheese)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이 역사적 발견이 효시가 돼 착착 새로운 우울증 치료약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lavil이나 Tofranil 같은 비교적 진보된 항우울제가 출시



종교인 교감

이해인 수녀와 법정 스님의 편지



가톨릭의 이해인 수녀는 지난 2월 입적하신 법정 스님 생존시 종교적으로 아주 교감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분의 교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해인 수녀님이 법정 스님 생존시 주고 받은 편지 중 일부를 본 동창회보에 게재한다.

< 이해인 수녀의 맑은 편지 >

법정 스님께

스님,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내립니다. 비오는 날은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던 스님,

꽃꽂이 앉아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하시던 스님.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발에 나가 흙을 만지고 흙 냄새를 맡아 보라고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지요.

며칠 전엔 스님의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나 오래 묵혀둔 스님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같이 한쪽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닮은 스님의 수필처럼 향기로운 빛과 여운을 남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피로해질 때 희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보내 주신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쩌나 가톨릭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 전 저와 함께 가르멜 수녀원에 가서 강의를 하셨을 때도 “눈감고 들으면 그대로 가톨릭 수사님의 말씀” 이라고

그곳 수녀들이 표현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웬지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깊어져서 우울해 있는 요즘의 제게 스님의 이 글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잔잔한 깨우침과 기쁨을 줍니다.

산골짜기로 들어가신 데다가 난해한 흘림체인 제 글씨를 늘처럼 못마땅해 하시고 나무라실까 지레 걱정도 되어서 아예 접어 두고 지냈지요.

스님, 언젠가 또 광안리에 오시어 이곳 여러 자매들과 스님

< 법정스님의 맑은 편지 >

이해인 수녀님께

수녀님, 광안리 바닷가의 그 모래톱이 내 기억의 바다에 조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조영안에서 볼 때 모든 일은 사람을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뜻을 꺾등으로 들고 말아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수녀님, 예수님이 당한 수난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일은 조그만 모래알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성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요,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길에 수녀원에서 하루 쉬면서 아침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일을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네의 질서와 고요가 내 속 뜰에까지 울려 왔습니다.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에는 해질녘에 달맞이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꽃입니다. 갓 피어난 꽃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날이면 날마다 새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곳 광안리 자매들의 청안(淸安)을 빕니다

“며칠 전 스님의 책을 읽다가 스님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같이 한쪽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닮은 스님의 수필처럼 향기로운 빛과 여운을 남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신의 조영 안에서 볼 때 모든 일은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노란 달맞이꽃이 바람 속에 좌아 좌아, 소리를 내며 피어나는 모습을 스님과 함께 지켜 보던 불일암의 그 고요한 들을 그리워 하며 무척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이제 주소도 모르는 강원도

의 표현대로 ‘현품 대조’도 하시고, 스님께서 펼치시는 ‘맑고 향기롭게’의 청정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바다가 가까우니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물미역도 많이 드릴테니까요.

출히 자리잡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로 속상해 하던 수녀님의 그늘진 속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 세계명화 감상

## 폴 고갱(Paul Gauguin)과 그의 명작



## 후기인상파 세 상징주의 개척 가난과 질병에 자살 시도, 병고로 요절

임이섭(미대 54)

폴 고갱 (Paul Gauguin, 1848~1903 •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후기 인상파 화가다.

그의 강렬한 색깔, 장식적인 평면 구도와 상징주의는 20세기 초 현대미술의 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갱은 그의 생애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다. 그것은 처절했고, 고독했다. 하지만 진실했던 한 예술가의 탐험이었다.

일찌기 영국의 문호 Somerset Maugham은 ‘달과 6펜스’라는 저작으로 고갱의 생애를 소설화 해서 베스트 셀러가 된 바 있다.

고갱은 1848년 파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남미 페루에서 자랐고, 프랑스로 돌아와 한 때는 남태평양에서 항해를 즐기기도 했다.

젊어서 증권 중계인으로 성공하고, 결혼해 다섯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어렸을 때부터 집념 하던 미술에 심취해 가족과 친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시문명을 혐오해 남태평양의 타히티섬에 이주, 작품활동을 했다. 원시적인 자연풍경과 그곳 원주민의 생활상을 흠모하며 고갱만의 새로운 상징주의를 개척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과 싸우다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병고로 그의 생은 끝이 났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은 그 제목처럼 고갱의 영혼의 절실한 고백이다.

그는 궁핍하고, 질병으로 쇠약하고, 불안해져 하나의 유서로 이 그림을 그려 철학적인 질문과 대결했다.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산에 올라가 독약을 먹었으나 자살에 실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갱은 이 그림의 오른쪽으로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른쪽의 세 여인과 어린 아기는 인생의 시작을 상징하고, 중앙의 파일을 따는 젊은이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인생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리고 왼쪽의 늙은 여인은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의 고뇌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889> 수채화와 유화 139 x 375cm 보스턴 미술관 소장

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의 산천과 새들은 풍요로운 대자연, 또 그 속에 불상이 서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질문의 해답을 갈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그림은 자기 주변 남양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린 고갱 일생의 작품들을 망라해 표현한 그의 심오한 질문이라 하겠다.

### Vision After Sermon 야곱의 천사와 씨름

이 그림은 고갱이 남태평양의 자연과 원주민에 매료돼 그린 많은 작품들과는 아주 다른 작품이다.

원래 고갱은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후에 신지주의 교회(Theosophy)로 개종했는데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은 후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야곱이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



과 씨름을 해 인정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구약성경의 일화를 그렸는데(거짓과 방황으로 헤매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듯 하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겹고 흰 색깔로 경건하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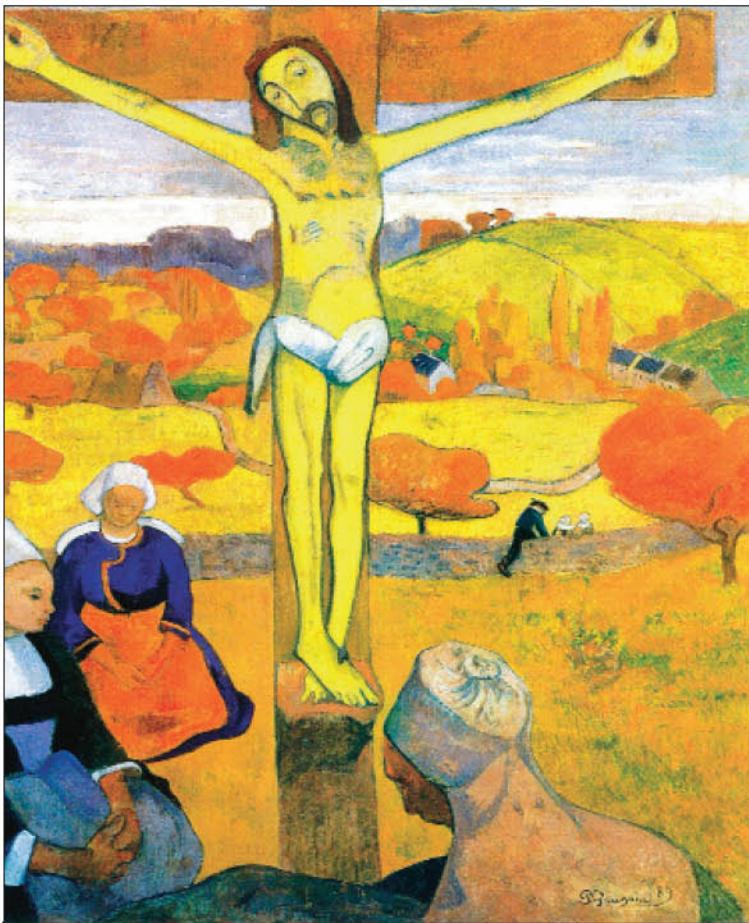
극히 상징적인 이 작품은 붉은 배경과 대각선으로 넘어진 굵은 나무로 씨름하는 야곱과 기도하는 검은 옷의 여인들을 대조한 파격적인 구도의 표현으로 20세기 초원시주의등에 영향을 준 작품이다.

### 노란색 그리스도

고갱은 1888년 뱅 고희와 잠시 같이 작품생활을 했는데 고희의 영향을 받아 고갱의 특색이며 정열적인 노란색으로 십자가의 예수와 그 주변을 자기 나름으로 그린 것이다.

전통적인 십자가 종교화의 틀을 벗어나 어둡지 않고 화사한 노란 색의 가을 풍경으로 재구성하고 십자가의 예수도 노란색으로 평면화했다. 십자가 주변에 둘러앉은 여인들도 비탄하는 대신 생각하는 모습으로 단순화, 구도가 작가가 시도한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고갱의 상징주의는 그로 하여금 보다 종교적인 주제를 추구하게 됐고 ‘노란 그리스도’는 그 작품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하는 고갱의 명작 중 하나다.



← 노란색 그리스도 <1889> 유화 91 x 73cm 뉴욕 Albright-Knox 회랑 소장

↓ Vision After Sermon: 야곱의 천사와 씨름 <1893> 유화 73 x 93cm 스코틀랜드 미술관 소장





## 지역 소식

## 지부 뉴스 &amp; 동문 동정



## 이정관 총영사 환영 만찬

북가주 총동창회가 상향 총영사의 환영만찬을 가졌다. 지난 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서울가든에서 개최된 이 환영 만찬에는 상향 총영사관의 동문 4명과 북가주 총동창회 임원 10명등이 참석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이정관 상향 총영사다.



## Capturing Sunlight

## 원미랑 동문 고국서 첫 개인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 중인 중견화가 원미랑 동문이 35년 만에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소격동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에서 <불꽃-햇빛을 잡

으려(Capturing Sunlight)> 전시를 열 것이다.

원 동문은 종이나 캔버스 대신 반투명 스테인리스 금속망(Stainless Steel Mesh)에 붓 대신 토치(Torch)를 사용해 꽃

을 새긴 작품을 선보였다. 꽃을 테마로 한데 대해 “꽃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장과 소멸을 겪지만 아름다움과 강한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다. 불꽃은 그런 꽃의 에너지와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자연의 뜨거운 햇살과 에너지, 꽃바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은 유한한 인생에 담겨져 있으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기에 더욱 간직하고 남겨두려는 듯하다. 숙명적 존재의 확실성과 순간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르고 싶은.

원 동문은 1947년생으로 모교 미대 회화과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70년 프랑스 정부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고등장식미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파리 1대학에서 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네스코 장학금, 프랑스 문화성 장학금을 수상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공대 69 강준현 동문

## 환갑나이에 변호사 합격

남가주 강준현(금속과 69) 동문이 59세로 지난해 말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해 11월 22일 가주 변호사 시험을 통해 227명의 한인 변호사가 탄생했는데 강 동문이 이중 한 명이 된 것이다. 강 동문이 젊은이도 어려워하는 변호사 시험을 59세에 합격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PG&E에서 정직원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합격까지 이뤄냈다는 것. 그는 55세 때 콩코드 로스쿨에 입학한 후 4년동안 회사에서 쉬는 날에는 12시간씩 공부한 끝에 마침내 변호사가 된 것이다.

“회사를 월~목요일만 출근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당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나머지 3일 동안은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고 회사에서도 중간 중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1983년부터 26년간 PG&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해 이제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다.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즐기면

서 편하게 지내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입학했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후에도 쉬는 시간이 없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산타바바라 카운티 법원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 두 곳의 법원에서 유일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로써 영어에 능숙치 못한 한국인들을 돕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있다. 이외에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무료과외를 제공하고 있다.

“돈을 벌고자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가 변호사가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나이도 아닌데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인생은 정말 짧다. 이 짧은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고 한다.

강준현 동문이 법대 졸업식에서 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 세계적인 간 전문의

## 한혜원 동문 ‘간 세미나’

동문으로 세계적인 간(肝) 전문의 한혜원 박사(사진)가 지난 3월 19일 LA 차병원에서 ‘간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앙일보와 남가주 한인 의사협회(회장 앨런 김), 코리아타운 로터리 클럽(회장 백강인) 등의 주관으로

열린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에 대해 한혜원 박사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 등 전문적인 강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혜원 동문은 모교 의대 졸업 후 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퍼슨대 의대 교수, 동 대학병원 간질환 예방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또한 1976년 노벨상 수상자 Baruch S. Blumberg 박사와 공동연구를 했으며 이 부문 우수 지도자상(1999년 미국 B형간염재단) 등 18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날 강연 후에는 우리 동포들의 간 건강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 신임회장 윤희경 동문 선출

## 뉴잉글랜드 동창회 총회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윤상래)가 지난 3월 막스보로의 할러데이인에서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동문회를 개최했다.

특히 MIT와 하버드 등 보스턴 인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는 특별 연사로 누난 박사가 초청돼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강연했고, 일리노이 대학의 김경일 교수가 학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메시

지들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

동창회는 올해에도 한인 학생들을 위해 동문들이 모은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으로는 레싱턴 고등학교 애린 김, 마운트 홀리오크 칼리지의 마리아 박, MIT 박사과정의 안주은, 하버드 대 박사과정의 우장희 씨가 선정돼 각각 1천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상래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윤희경(문리대 62), 부회장에 김병국(공대 71)동문이 선출됐다.

윤희경 신임회장은 존슨&존슨사에서 은퇴후 보스턴 봉사회를 이끌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윤상래 동문회장과 김용구 장학위원장 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우장희, 안주은 윤상래 회장, 김용구 장학위원장, 마리아 박, 애린 김, 이재형 사무총장.



## 지역 소식

## 지부 뉴스 &amp; 동문동정

이경훈 동문 딸 이에담 양

## SAT 2400점 만점 받아

이경훈 동문의 딸 이에담 양이 지난 3월 치러진 SAT에서 2400점 만점을 받아 화제다. 이에담 양은 현재 코네티컷 소재 Loomis Chaffee School 11학년 재학 중으로 중학 시절인 8학년 때 2240점을 받은 뒤 고교 입학후 첫 시험에서 이같은 성적을 올렸다.

이경훈 동문은 “평소 ‘미국 교육에서 영어는 Debate로, 수학은 AMC로 끝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 소신이 딸을 통해 확인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경훈 동문은 미주교육신문 전 발행인으로, 남가주에 Debate와 AMC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양은 학업 외에도 9~10학년 때는 학교 President로,

현재는 학교 기숙사의 학생사감으로, 교내 Debate Team과 Korean Club에서 President, 교내 자원봉사 단체 Spread the Dough Branch에서는 Co-President로 일하고 있다.

이 양의 Loomis Chaffee School은 명문 보딩스쿨 중의 하나. 이 학교는 현재 이 양에게 Millard T. Wilson Scholarship을 주고 있고, 미국의 유명 장학재단인 Jack Kent Cooke Foundation에서도 이 양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양의 꿈은 향후 Bio Medical Researcher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SAT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cropolisTimes

이에담 양이 학교 대표로 장학 퀴즈에 출연하고 있는 모습.



김현정 박사

## 아시안 아트뮤지엄 큐레이터 임명

아시안 아트 뮤지엄 한국관 선임 큐레이터로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의 한국 및 중국미술 담당 큐레이터였던 동문 김현정(사진) 박사가 임명됐다.

김 동문은 서울대와 UC 산타 바바라에서 19세기 한국과 중국미술을 전공,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받았고, UC 산타바바라

에서 동양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동문은 LACMA 부임 전 서울대에서 동양미술사를 가르쳤으며 한국 회화연구소 상임연구원도 역임했다.

지난 2006년부터 LACMA에서 근무한 김 동문은 2009년 가을 개관한 최대 규모의 한국미술 상설 전시관인 LACMA 한국관을 주관해왔다.

아시안 아트 뮤지엄 제이 슈(Jay Xu) 관장은 “김 박사는 그동안 한국유물 연구와 관리, 특별전시 감독, 여러 미술관과 우호관계 유지, 지역사회 협력과 모금활동 등 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서 다양한 업적과 능력들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새로 개관한 한국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6세기 후반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78호)도 포함돼 있다.

동문 산악회 정식 발족  
매달 한차례씩 정기산행

밴쿠버 동창회가 지난 3월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Bunzen Lake 지역 산행을 즐겁게 마쳤다.

이번 산행에서는 동문회 산악회를 정식 발족했는데 이광호 동문이 회장, 진성훈 동문이 총무로 선출됐다.

산악회는 앞으로 매달 한번씩 산행을 할 계획인데 한번은 비교적 쉽고 평탄한 코스, 한번은 좀 험하고 고생스럽지만 비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택해 자신에 맞는 기회를 골라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동창회는 다음 산행은 5월1일

Hollyburn Mountain으로 계획을 세웠다.

3월 산행 참여 동문은 다음과 같다. 황택구(미대 57)·박하일(문리대 59)·이인철(사대 59)·이광호(농대 62)·이명규(농대 69)·한대준(공대 74)·김대현(공대 75)·박병우(사회대 76)·남궁영(공대 77)·진성훈(농대 82)·이상근(인문대 85)동문 & 딸(2)이 참석했다.

특히, 이상근 동문은 6살난 딸까지 동반해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총무 남궁영>

## 하춘근 동문 사진전시회

하춘근 동문(사진 왼쪽,오른쪽은 갤러리의 Geir Jordahl 디렉터)이 캘리포니아 헤이워

드 포토 센터럴 갤러리(Photo Central Gallery)서 4월30일까지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하 동문은 모교 공대 전기통신공학과 졸업후 1964년 미국 GTE등에서 전기통신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지난 92년 은퇴한 뒤

사진 작가 꿈을 위해 94년부터 로스앨토스 힐의 풋힐칼리지에서 사진 이론과 작업 기술등을 공부했다. 또 예술 사진 작가가 되기위해 사라토가 소재 웨스트 밸리 칼리지에서 데스크 벨리등 실제적인 현장 촬영 기법도 익혔다.

헤이워드 포토센터럴갤러리 전시회에는 60여명의 작가가 15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 갤러리는 사진 작가 계발과 작가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필름 및 디지털 사진 이론 강의후 학점도 수여하며 야외실습,암실 현상등 작품 완성후 평가를 받아 전시작품으로 선정해 전시한다.

## 김빛내리 교수 UC버클리 강연

## 주제 '동물내 마이크로RNA의 성숙'

모교 김빛내리(사진) 교수가 지난 3월 23일 UC 버클리 세포발생 생물학(Cell & Developmental Biology) Division이 주최한 'Non-coding RNA Symposium'에서 강연했다.

지난 2007년 로레알 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 동문의 강연 주제는 '동물내 마이크로RNA의 성숙(Maturation of microRNAs in animals)'이다.

김 동문은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조절, 암세포와 줄기세포에 대해 마이크로RNA들이 갖는 역할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김 동문은 모교 미생물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1년 모교로 돌아와 생명과

학인력 양성사업단 연구조교수, 2004년 생명과학부 조교수, 2008년 부교수가 됐다. 지난해에는 모교 석좌교수에 오르는 영예에 호암 의학상도 수상했으며 고국에서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소식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 시카고 첫 이사회 열어

신임 간부인준, 올 행사계획 등 논의

2010년도 시카고 지역 동창회 첫 이사회가 지난 3월 20일 Oak Brook의 Drury Lane에서 열렸다.

약 10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김사직 차기회장 사회로 열린 이사회에서 이영우 회장은 지금까지 수고해준 간부진들의 봉사에 대해 치하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의 행사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그 행사중 하나가 연례행사

외에 관악연대를 위한 행사로 '지혜로운 자녀교육'이라는 소재의 Seminar라는 것이다. 젊은 동문들이 이민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해 3명의 강사를 모시고 범동포적으로 Community Service 차원에서 서울대 졸업생 뿐 아니라 동포들까지 초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강사진과 장소는 이미 결정돼 있다.

이 회장은 "McDonald Cor-

poration과 Chase Bank에서 참석자들에게 Hand-out item으로 Premium McCaffe coffee mug, notebook, Gift Card 등을 선사하겠다고 스폰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회장단과 임원 및 이사 소개에 이어 2010~2012년 신임이사 추천과 인준이 있었다.

또한 올해의 예산안과 행사계획안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이어 6월에 있을 제19차 미주총동창회 평의원 회의 주최 계획이 토의됐으며 동창회 사업활동보고가 이어졌다.

### UCSD 교수 진성호 동문

## 학문간 통합연구 프로그램

UC샌디에이고(UCSD) 교수 진성호(사진) 동문이 주도하는 학문간 통합연구 프로그램이 관련 학계에서 인기다.

진 동문은 나노기술을 기본으로 바이오 재료공학부터 의공학, 마그네틱 기술,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대학 재료과학 및 공학 프로그램(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Program) 디렉터다.

이곳에서는 전기, 전자, 물리, 화학, 생물, 기계 등 어떤 전공자라도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른 분야의 논문을 쓸 수 있고 지도교수도 학과 구분없이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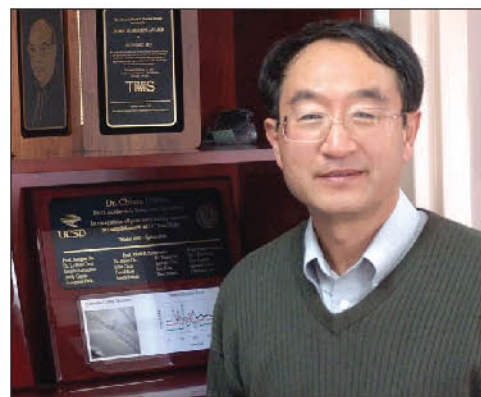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나노기술'이다.

진 교수 연구팀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나노 생명공학 연구는 획기적인 치료방법으로 떠오르는 줄기세포 연구에 나노기술을 접목해 치료 억제 요소 제

거 연구,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 침투(Drug Penetration) 연구, 뼈조직과 임플란트 사이 결합 강화 임플란트 효과 증대 연구 등이다.

진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인 UCSD 생명공학, 제이콥스 공대, UCSD 병원, 스크립스 병원 등과 협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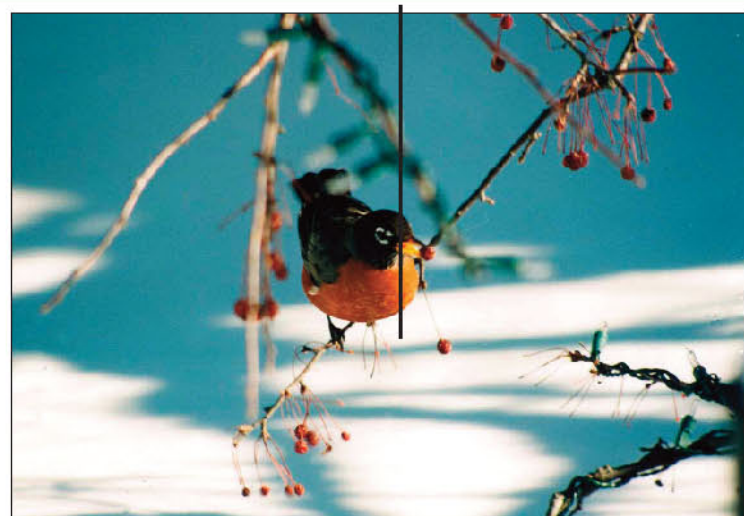
미 국립공학 학술원 정회원으로 '사이언스', '네이처' 등 전문 학술지에 1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진 교수는 모교 공대를 거쳐 UC버클리에서 박사 학위후 벨(Bell) 연구소에서 26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 노재욱 동문 사진전시회

'During holiday season. Looking for food, a Robin found red ripe crab apples Which hang on bare tree branches. That are decorated with Christmas lights....'

노재욱 동문(외대 58)이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시카고의 Northbrook Public Library에서 개최한 자신의 사진전 작품중 'Robin Picking Crab Apple'이라는 작품(사진)의 뒷면 중 일부다.



노 동문은 자신의 사진작품 일부에 직접 지은 영문 시를 넣어 단순한 사진전이 아니라 차라리 '사시전(寫詩展)'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시카고의 많은 동문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노재욱 동문 부부가 사진전 기념 리셉션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Northbrook Public Library 측은 노 동문의 작품에 대해 무려 1개월간의 전시 기간을 할애해주었다.

노 동문은 지난 1966년부터 틈틈이 사진 창작 활동에 나서 그동안 자신의 정원에서 촬영한 작품만도 300여 점에 이르고 있다.

노 동문의 자택 정원은 뛰어난 조경으로 이름나 있어 지난 1997년 'Chicago Tribune'의 특집판으로 게재됐을 정도다.



### 이환 동문 강연회

파스칼 연구의 권위자 이환(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랜지 카운티에서 지난 8일 강연회를 가졌다.

이 동문은 이날 'OC글사랑모임(회장 정찬열)'에서 '문예사조 고찰 - 프랑스 낭만주의

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모교 불문파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동문은 '파스칼의 생애와 사상', '파스칼 연구', '파스칼-팡세', '프랑스 문학 사상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 외에 프랑스 근대문학 연구의 권위자로 꼽힌다.



### 최진훈 동문 연합 성가대 지휘

내과 의사로 지난 20여년간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아 온 최진훈 동문이 뉴욕 화이트 플레인즈 웨체스터 교회연합 부활절 새벽



### 공무원 시험 강의 스티븐 강 동문

스티븐 강 동문(문리대 지리학과 졸, 사진)이 가주 공무원 시험을 위한 강의에 나섰다.

가주 DMV 공무원 3년차인 강 동문은 DMV공무원이 되기 위한 지름길을 한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중앙교육문화센터에서 이같은 강좌를 열게 됐다.오는 DMV 공무원 자리중 특히 민원상담직(MVFR)이다.

예배 연합성가대를 지휘했다.

1973년 뉴욕에 온 그는 처음 메소디스트 병원 레지던트 시절부터 병원내 환자와 직원을 위한 교회에서 반주를 시작했으며, 브롱스 한인교회에서의 성가대 반주를 비롯해 웨체스터 연합교회에서 15년 넘게 성가대 지휘를 했고 이어서 뉴저지와 플러싱 교회 등에서 성가대 지휘를 해왔다.

최 동문은 5살 때부터 산부인과 의사 할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운 이래 모교 외대 재학시 프랜치 혼 연주자로 대학내 오케스트라에 참여했다.

1986년에는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가 의사의 시간을 쪼개면서 빈센트 라셀마 씨로부터 4년간 지휘공부를 했다.

강 동문은 "공무원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정년이 없으며 베네핏이 너무 좋아 선택했다고 밝혔다.



### 북텍사스 동창회

북텍사스 동창회가 지난 4월 10일 춘계골프대회를 가졌다. 이어 4월 30일 장학생 모집

을 마감했으며 5월21일 장학금 수여식을 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일정은 추계 골프대회 겸 야유회(일시 10월 2일 또는 9일, 토요일 예정, 장소는 미정)와 12월 4일 송년회가 있다.



## 고국 동문 동정

## 수상 · 인사 · 행사

## 수상

▲안병훈 (행정 57~61 도서출판기파랑 대표·본회 부회장)=



지난 3월 10일 한림대 일송기념사업회로부터 제5회 일송상 수상.

▲박한식(정치59-63 미국 조지아대 교수)=3월 15일 한반도 평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모어하우스대로부터 '간디·킹·이케다 평화상' 수상자에 선정.

▲백성기(약학59-63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근 열병합발전소와 폐수처리장 개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박기정(사회 61-68 전남일보 교문)=최근 건강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최홍규(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3월 24일 중앙대 출판문인들로 구성된 중앙문학회에서 제15회 중앙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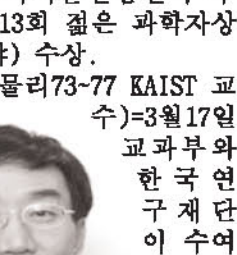
▲이승규(의학67-73 울산대 교수)=3월 16일 아산사회복지재단서 제3회 아산의학상 수상.

▲김종훈(건축69-73 한미파슨스 회장·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장)=3월 4일 서울 힐튼호텔서 '2010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미래경영부문) 수상. 또 24일 매경이코노미 선정 '2010년 한국의 100대 CEO'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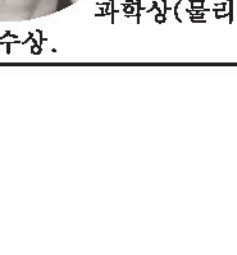


▲조광현(의학71-77 KAIST 교수)=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13회 젊은 과학자상(공학 분야) 수상.

▲이용희(물리73-77 KAIST 교수)=3월 17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물리 분야) 수상.



▲오우택(제약 74-78 모교 약학과 교수)=3월 17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화학 분야)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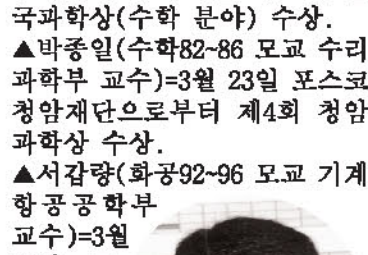
▲윤경병(화학75-79 서강대 교수)=3월 17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화학 분야) 수상.



▲강현배(수학78-82 인하대 교수)=3월 17일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한국과학상(수학 분야) 수상.



▲박종일(수학82-86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3월 23일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제4회 청암과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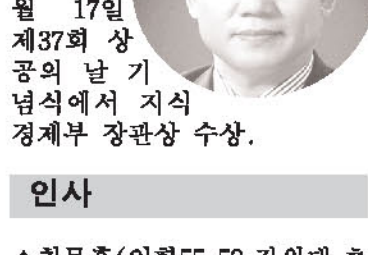
▲서갑량(화공92-96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 제13회 젊은 과학자상(공학) 수상.



▲장형석(디자인99-03 영화감독)=3월 26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제4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의형제'로 영화부문 감독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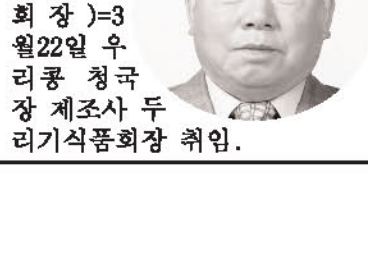
▲이의현(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중앙대 겸임교수)=3월 17일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최문휴(임학55-59 강원대 초빙교수)=3월 2일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에 재선임.



▲홍동선(임학56-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명예회장·영동지부동창회장)=3월 22일 우리콩청국장제조사 두리식품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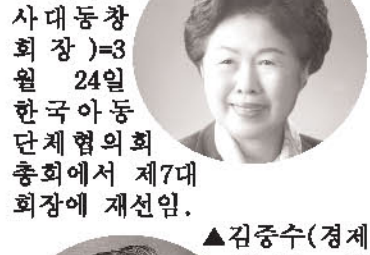
▲이병일(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최근 한국블루베리협회 제3대 회장에 재선임.



▲유장희(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3월 26일 대통령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임명.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3월 24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재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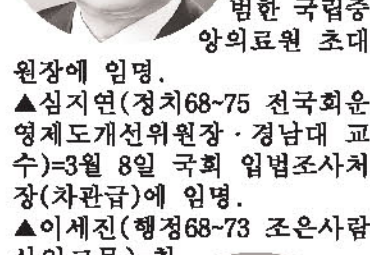
▲김중수(경제 66-73 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4월 1일 임기 4년의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



▲양재섭(동 물 67-71 한국유전학회 회장·대구대 교수)=3월 1일 대구대 대학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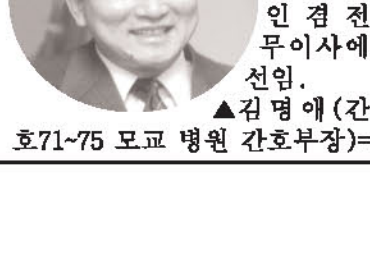
▲박재갑(의학67-73 국립암센터 원장·모교 외과학교수)=4월 2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국립중앙의료원 초대 원장에 임명.



▲심지연(정치68-75 전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장·경남대 교수)=3월 8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차관급)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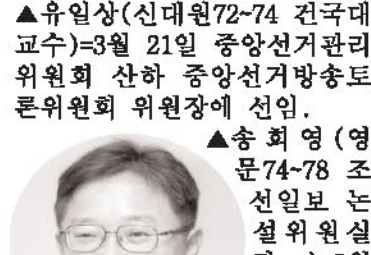
▲이세진(행정68-73 조은사람상임교문)=최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사무처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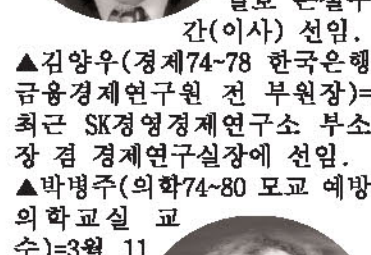
▲강천석(사회 69-76 조선일보 주필·본보 논설위원)=3월 19일 조선일보 주필·편집인 겸 전무이사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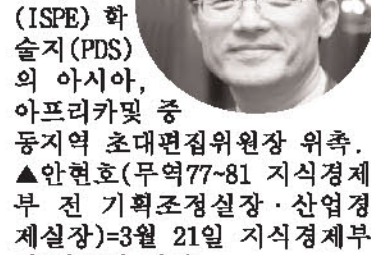
▲김양우(경제74-78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전 부원장)=최근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경제연구실장에 선임.



▲박병주(의학74-80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3월 11일 국제약물역학회(ISPE) 학술지(PDS)의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초대편집위원장 위촉.



▲안현호(무역77-81 지식경제부 전 기획조정실장·산업경제실장)=3월 21일 지식경제부 제1차관에 임명.



▲정종관(화학교육77-81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3월 1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영향평가학회 아시아·아프리카·대양주 지역이사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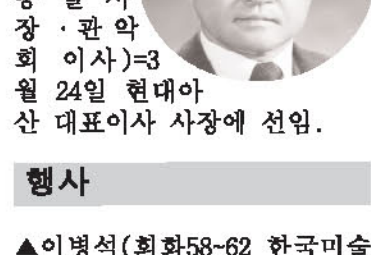
▲황인자(대학원 78-82 영산대 겸임교수)=지난 3월 17일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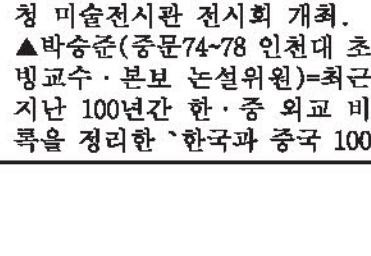
▲도동환(AMP 26기 민족문화영상협회장)=3월 10일 임기 3년의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초대 이사장에 선임.



▲장경작(AMP 33기 롯데그룹 호텔부문 전 총괄 사장·관악회 이사)=3월 24일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이병석(회화58-62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서울은평미술협회장)=3월 15일 홍콩 중앙전람청 미술전시관 전시회 개최.



▲박승준(중문74-78 인천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최근 지난 100년간 한·중 외교 비록을 정리한 '한국과 중국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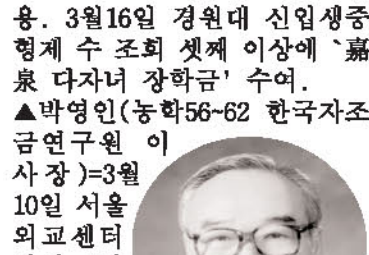
년'(기파랑) 출간.



▲권이혁(의학 41~47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본회 고문)=3월 23일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세계결핵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이길녀(의학51-57 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1989년 가천의대 길병원서 태어난 네쌍둥이와 약삭을 지켜 2월 16일 간호사로 채용. 3월 16일 경원대 신입생중형제 수조회 셋째 이상에 '嘉泉 다자녀 장학금' 수여.



▲박영인(농학56-62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3월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자조금 도입백서' 출판 기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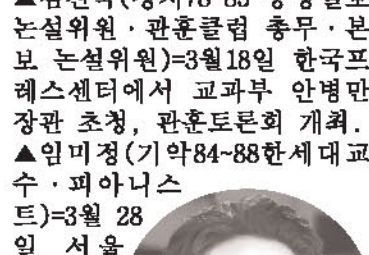
▲정동준(행대원65-6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서초지회장)=4월 5일 서울 서초구 민회관에서 무료한자대 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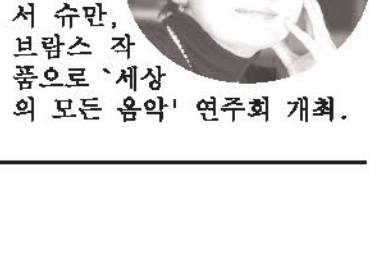
▲전경수(토목 공학 67-71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한토목학회 회장)=3월 30일 건설회관에 제13회 토목의날 개최.



▲정운(자원공학76-80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3월 18일 서울 예장동문학의집·서울에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 왜 미디어 아트에 주목하는가' 주제로 제1회 융합카페 개최.



▲김진국(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관훈클럽 총무·본보 논설위원)=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과부 안병만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개최.



▲임미정(기악84-88한세대교수·피아니스트)=3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슈만, 브람스 작품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 연주회 개최.





## 동상외비·우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미주 동창회 10대 회장단(시카고) 본부의 영수 기록임

**평창 회비 2009/2010 회계년도**

|                                             |                                                                                                                                                                                                                                                                                                                                                                                              |                                                                                                                                                                                                                                                                                                                                                                                                                                                                                                                                                                                                                                                                                                                                                 |                                                                                                                                                                                                                                                                                                                                                                                                                                                                                                                                                                                                                                                                                                                                                |                                                                                                                                                                                                                                                                                                                                                                                                                                                                                                                                                                                                                                                                                |                                                                 |                                |                                                                                                                                                                                                                                                                             |                                                                                                                                                                                                                                                                                                                                                                                                                                                                                                                                                                                                                                                                                                                                                 |                                                                                                                                                                                                                                                                                                                                                                                                                                                                                                                                                                                            |                                                                                                                       |
|---------------------------------------------|----------------------------------------------------------------------------------------------------------------------------------------------------------------------------------------------------------------------------------------------------------------------------------------------------------------------------------------------------------------------------------------------|-------------------------------------------------------------------------------------------------------------------------------------------------------------------------------------------------------------------------------------------------------------------------------------------------------------------------------------------------------------------------------------------------------------------------------------------------------------------------------------------------------------------------------------------------------------------------------------------------------------------------------------------------------------------------------------------------------------------------------------------------|------------------------------------------------------------------------------------------------------------------------------------------------------------------------------------------------------------------------------------------------------------------------------------------------------------------------------------------------------------------------------------------------------------------------------------------------------------------------------------------------------------------------------------------------------------------------------------------------------------------------------------------------------------------------------------------------------------------------------------------------|--------------------------------------------------------------------------------------------------------------------------------------------------------------------------------------------------------------------------------------------------------------------------------------------------------------------------------------------------------------------------------------------------------------------------------------------------------------------------------------------------------------------------------------------------------------------------------------------------------------------------------------------------------------------------------|-----------------------------------------------------------------|--------------------------------|-----------------------------------------------------------------------------------------------------------------------------------------------------------------------------------------------------------------------------------------------------------------------------|-------------------------------------------------------------------------------------------------------------------------------------------------------------------------------------------------------------------------------------------------------------------------------------------------------------------------------------------------------------------------------------------------------------------------------------------------------------------------------------------------------------------------------------------------------------------------------------------------------------------------------------------------------------------------------------------------------------------------------------------------|--------------------------------------------------------------------------------------------------------------------------------------------------------------------------------------------------------------------------------------------------------------------------------------------------------------------------------------------------------------------------------------------------------------------------------------------------------------------------------------------------------------------------------------------------------------------------------------------|-----------------------------------------------------------------------------------------------------------------------|
| <b>Alaska</b><br>배석연 (농대 58)<br>윤제중 (농대 55) | 노제민 ( )<br>문병길(문리대61)<br>문병하 (법대 51)<br>문인일 (공대 51)<br>문정현 (약대 54)<br>민병곤 ( )<br>민병완 (약대 68)<br>민병일 (치대 61)<br>박 현 (상대 68)<br>박경화(문리대46)<br>박국종 (법대 57)<br>박동훈 ( )<br>박민식(수의대65)<br>박성민 (의대 58)<br>박영옥 (사대 55)<br>박우성 (상대 77)<br>박원준 (공대 53)<br>박희순 (상대 53)<br>박임하 (치대 56)<br>박제인 (약대 60)<br>박종성 (법대 53)<br>박종수(수의대58)<br>박종식 (의대 48)<br>박성덕 (법대 59)<br>김영석 (상대 62)<br>김용수(경영대74)<br>김은희 ( ) | 신영규 (의대 57)<br>신영수 (상대 70)<br>신용규(문리대61)<br>신우천 (치대 67)<br>신정수(간호대54)<br>신정연 (미대 61)<br>신희정 (미대 73)<br>안병일 (의대 63)<br>안현중 (음대 56)<br>양광주(문대원58)<br>양승문 (공대 65)<br>양은식 (음대 70)<br>양창호 (상대 54)<br>양태준 (상대 56)<br>염동해 (농대 74)<br>오명주(간호대77)<br>오양주(간호대60)<br>오찬수 (약대 57)<br>우옥자(간호대60)<br>원미랑 (미대 65)<br>유석홍 (상대 61)<br>유외영(문리대56)<br>유재환 (상대 67)<br>유진형 (상대 47)<br>유창호 (약대 74)<br>유현순(간호대69)<br>윤경자 (음대 62)<br>윤석철 (상대 60)<br>윤성희(자연대58)<br>윤용길 (공대 55)<br>윤장희 (상대 83)<br>윤홍기 (의대 58)<br>윤희성 (치대 65)<br>이 선 (의대 42)<br>이강원(인문대76)<br>이경수(수의대73)<br>이근철 (상대 56)<br>이근호 (공대 46)<br>이기재 (사대 52)<br>이기준 (법대 54)<br>이길자 (음대 57)<br>이난경 (음대 66)<br>이동섭 (사대 36)<br>이명규 (미대 73)<br>이명희(간호대67)<br>이방기 (농대 59)<br>이병무 (치대 70)<br>이상문 (의대 52)<br>이 선 (의대 42) | 이성용 (음대 58)<br>이승훈 (상대 74)<br>이양구 (상대 57)<br>이영송 (치대 63)<br>이영식 (농대 58)<br>이영신(간호대77)<br>이우근 (음대 46)<br>이원택 (의대 65)<br>이의덕(신문대원70)<br>이은희 (의대 48)<br>이재권 (법대 56)<br>이재룡 (공대 71)<br>이정열(간호대68)<br>이정옥(생활대71)<br>이종길 (상대53 )<br>이종묘(간호대69)<br>이준식 (의대 61)<br>이준호 (상대 65)<br>이중열 (공대 69)<br>이체진 (문리대 )<br>이필권(보대원65)<br>이해영 (공대 56)<br>이현홍 (법대 50)<br>이혜란 (미대 )<br>이호진(간호대74)<br>이홍표 (의대 58)<br>이화숙(간호대67)<br>임동호 (약대 55)<br>임승채(문리대66)<br>임용오 (의대 57)<br>임정관 (음대 76)<br>임진한 (치대 68)<br>임춘수 (의대 57)<br>임화식 (치대 59)<br>임희영 (치대 69)<br>장 준 (인문대85)<br>장경구 (미대 67)<br>장기화 (치대 57)<br>장기창 (공대 56)<br>장동석(문리대66)<br>장재찬 (의대 61)<br>장진섭 (약대 66)<br>전낙관 (사대 60)<br>전병원 (공대 54)<br>전성대 (사대 60)<br>전호선(수의대67)<br>전화자 (음대 60)<br>전희택 (의대 58)<br>정원훈 (상대 38) | 정인덕(보대원64)<br>정인환 (법대 54)<br>정재형 (약대 55)<br>정진수 (공대 56)<br>정창희 (법대 54)<br>정태무 (사대 44)<br>정현진(간호대68)<br>제영혜(생활대71)<br>조동준 (의대 57)<br>조만연 (상대 58)<br>조성운 (법대 46)<br>조상하 (치대 64)<br>조제길 (사대 61)<br>조중용 (공대 45)<br>조대목 (사대 60)<br>조태준(문리대59)<br>주수봉 (공대 67)<br>주영희(보건대원61)<br>지인수 (상대 57)<br>전희섭(문리대50)<br>차기민 (공대 85)<br>차중환 (사대 54)<br>채희원 ( )<br>최경복(간호대69)<br>최경자 (약대 63)<br>최덕순(간호대59)<br>최복영 (사대 56)<br>최영순(간호대69)<br>최왕옥 (공대 69)<br>최용완 (공대 57)<br>최인용(문리대65)<br>최태근 (법대 48)<br>최홍수(자연대87)<br>탁혜숙 (음대 67)<br>하기환 (공대 66)<br>하상원(대학원90)<br>한중철 (치대 62)<br>한태호(인문대75)<br>허영진(문리대61)<br>현원영 (사대 45)<br>홍병익 (공대 68)<br>황동하 (의대 65)<br>황만익 (사대 59)<br>황석우 (의대 53)<br>황정식 (사대 54) | <b>Connecticut</b><br>김기훈 (상대 52)<br>김내도 (공대 62)<br>라찬국 (의대 58) | <b>Delaware</b><br>이재성 (공대 70) | <b>Florida</b><br>문상규 (의대 56)<br>신항재(수의대59)<br>박창익 (농대 64)<br>안창현 (의대 55)<br>양찬기 (의대 57)<br>엄두광(문리대60)<br>오석일 (의대 64)<br>윤홍철 (의대 56)<br>이정필 (의대 58)<br>이중오 (의대 58)<br>전웅상 (공대 46)<br>정구영 (의대 50)<br>정진목 (의대 51)<br>한기빈 (공대 52)<br>한성수 (의대 54)<br>한용현 (의대 44)<br>황현상 (의대 55) | 강영국(수의대67)<br>강창만 (의대 58)<br>계훈택 (의대 55)<br>고병철 (법대 55)<br>곽영로(수의대72)<br>구정희 (의대 59)<br>권오현(문리대57)<br>김갑중 (의대 57)<br>김광철 (사대 47)<br>김길중 (의대 59)<br>김사직 (상대 59)<br>김상기(문리대56)<br>김선철 (의대 58)<br>김영호 (의대 71)<br>김용성 (상대 54)<br>김용우 (공대 58)<br>김용주 (공대 73)<br>김윤범 (의대 54)<br>김일훈 (의대 51)<br>김재환 (사대 72)<br>김정주(문리대60)<br>김현우(문리대61)<br>노병일 (의대 62)<br>노병훈 (사대 47)<br>문조훈 (약대 62)<br>문탁영(문리대55)<br>박 숙 (의대 64)<br>박영규 (농대 57)<br>박인숙 (미대 69)<br>반용균 (의대 53)<br>배영선 (의대 54)<br>서상현 (의대 65)<br>소진문 (치대 58)<br>송재현 (의대 46)<br>신석균(문리대54)<br>안은식(문리대55)<br>양승표(문리대57)<br>양홍미 (약대 63)<br>오기창 (법대 50)<br>오명자(간호대60)<br>윤희정 (사대 87)<br>이광선 (의대 59)<br>이덕수(문리대58)<br>이동균 (공대 75)<br>이명희 (상대 52)<br>이소희 (의대 61)<br>이승자 (사대 60)<br>이승훈 (공대 66)<br>이승훈 (공대 66) | 이영우(문리대66)<br>이용락 (공대 48)<br>이윤모 (농대 57)<br>이정일 (농대 57)<br>이진주(문리대55)<br>이춘우 (치대 54)<br>임이섭 (미대 54)<br>임현재 (의대 59)<br>장기남(문리대62)<br>장시경 (약대 58)<br>장윤일 (공대 60)<br>장은숙(문리대53)<br>전현일 (농대 62)<br>정 호 (공대 62)<br>정광훈 (공대 60)<br>정병욱 (의대 53)<br>정승규 (공대 60)<br>정영숙 (사대 59)<br>정지희(문리대59)<br>제환수 (사대 65)<br>조 철 (공대 49)<br>조대현 (공대 57)<br>조중행 (의대 63)<br>조형원 (약대 50)<br>지예자 (미대 65)<br>진관보 (의대 72)<br>진보린 (약대 56)<br>천양곡 (의대 63)<br>최길용(문리대57)<br>최순문(간호대57)<br>최순용(문리대61)<br>최애옥(간호대47)<br>최희필 (의대 53)<br>최혜숙 (의대 53)<br>최호승 (사대 58)<br>최희수(문리대67)<br>한희일 (공대 62)<br>한재은 (의대 59)<br>함성택(문리대55) | <b>Indiana</b><br>김연화 (음대 68)<br>김정숙 (약대 51)<br>박연희(간호대61)<br>송순영(문리대52)<br>이종일 (의대 65)<br>임영진 (의대 54)<br>한상호 (의대 56) |
|---------------------------------------------|----------------------------------------------------------------------------------------------------------------------------------------------------------------------------------------------------------------------------------------------------------------------------------------------------------------------------------------------------------------------------------------------|-------------------------------------------------------------------------------------------------------------------------------------------------------------------------------------------------------------------------------------------------------------------------------------------------------------------------------------------------------------------------------------------------------------------------------------------------------------------------------------------------------------------------------------------------------------------------------------------------------------------------------------------------------------------------------------------------------------------------------------------------|------------------------------------------------------------------------------------------------------------------------------------------------------------------------------------------------------------------------------------------------------------------------------------------------------------------------------------------------------------------------------------------------------------------------------------------------------------------------------------------------------------------------------------------------------------------------------------------------------------------------------------------------------------------------------------------------------------------------------------------------|--------------------------------------------------------------------------------------------------------------------------------------------------------------------------------------------------------------------------------------------------------------------------------------------------------------------------------------------------------------------------------------------------------------------------------------------------------------------------------------------------------------------------------------------------------------------------------------------------------------------------------------------------------------------------------|-----------------------------------------------------------------|--------------------------------|-----------------------------------------------------------------------------------------------------------------------------------------------------------------------------------------------------------------------------------------------------------------------------|-------------------------------------------------------------------------------------------------------------------------------------------------------------------------------------------------------------------------------------------------------------------------------------------------------------------------------------------------------------------------------------------------------------------------------------------------------------------------------------------------------------------------------------------------------------------------------------------------------------------------------------------------------------------------------------------------------------------------------------------------|--------------------------------------------------------------------------------------------------------------------------------------------------------------------------------------------------------------------------------------------------------------------------------------------------------------------------------------------------------------------------------------------------------------------------------------------------------------------------------------------------------------------------------------------------------------------------------------------|-----------------------------------------------------------------------------------------------------------------------|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등록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75**

**2010. 7. 1.- 2011. 6. 30.**

**\$75**

## 관악 후원금

|              |               |              |                |
|--------------|---------------|--------------|----------------|
| <b>\$200</b> | <b>\$200+</b> | <b>\$500</b> | <b>\$1,000</b> |
| <b>\$200</b> | <b>\$200+</b> | <b>\$500</b> | <b>\$1,000</b> |

|                                  |                          |                          |
|----------------------------------|--------------------------|--------------------------|
| 종신<br>여사비                        | 모교발전기금<br>[백만원기금]        | 지부 분담금                   |
| <input type="checkbox"/> \$3,000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작성일:  |         | 년 | 월 | 일 |
| 성명:(한글) |      | (영문)  |         |   |   |   |
| 단과대:    | 대학원: | 학과:   | 입학 년도:  |   |   |   |
| 현주소:    |      |       |         |   |   |   |
| 전주소:    |      |       |         |   |   |   |
| 전화/집:   |      | Cell: | E-mail: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b></p> <p>Amount:    \$ _____</p> <p><input type="checkbox"/>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p> <p><b>Send to:</b><br/> SNU Alumni Association<br/>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p> |  | <p>Card Holder Name: _____</p> <p>Card: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Card    <input type="checkbox"/></p> <p>Card No.: _____</p> <p>Security Code: _____    Exp. Date: _____</p> <p>Signature: _____</p> |
|---------------------------------------------------------------------------------------------------------------------------------------------------------------------------------------------------------------------------------------------------------------------------|--|------------------------------------------------------------------------------------------------------------------------------------------------------------------------------------------------------------------------|



## 동창회비-우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b>Iowa</b><br>서만길 (의대 61) | <b>Michigan</b><br>권순관 (공대 60)<br>김국화 (공대 56)<br>김용호 (약대 69)<br>김우신 (의대 60)<br>김원정 (의대 69)<br>김정일 (의대 57)<br>남상용 (공대 52)<br>박준환 (의대 55)<br>오동환 (의대 65)<br>유효명 (의대 58)<br>육태식 (의대 61)<br>이민우 (의대 61)<br>이상일 (의대 54)<br>이성길 (의대 65)<br>이종기 (농대 55)<br>이한중 (의대 59)<br>장철 (의대 65)<br>장병호 (의대 66)<br>정성순 (음대 68)<br>조병권 (공대 64)<br>차대양 (공대 55)<br>채무현 (의대 59)<br>최공창 (의대 55)<br>하계현 (공대 64) | 기도섭 (공대 67)<br>김경애 (간호대 55)<br>김규화 (상대 63)<br>김대인 (의대 59)<br>김동건 (사대 67)<br>김명철 (공대 60)<br>김봉희 (공대 69)<br>김세환 (공대 65)<br>김양호 (의대 51)<br>김연석 (상대 54)<br>김영애 (사대 56)<br>김영일 (약대 58)<br>김영진 (문리대 50)<br>김영철 (의대 55)<br>김옥현 (의대 59)<br>김은섭 (의대 53)<br>김자익 (의대 69)<br>김중석 (문리대 55)<br>김한중 (의대 56)<br>김훈일 (공대 60)<br>박경원 (미대 66)<br>박대규 (사대 55)<br>박성일 (상대 58)<br>박성호 (공대 57)<br>박은규 (약대 72)<br>박익수 (사대 52)<br>박진우 (상대 77)<br>박태호 (상대 76)<br>배병애 (간호대 47)<br>서정용 (의대 63)<br>손광수 (약대 59)<br>손광호 (의대 59)<br>송기인 (의대 60)<br>신두식 (의대 52)<br>오용호 (의대 66)<br>유호근 (문리대 71)<br>윤갑석 (공대 53)<br>윤순철 (사대 44)<br>윤준식 (법대 58)<br>윤현남 ( )<br>이경립 (상대 64)<br>이능석 (의대 57)<br>이문희 (문리대 54)<br>이유찬 (의대 58)<br>이재원 (법대 60)<br>이종석 (상대 57)<br>정순기 (문리대 69)<br>정준영 (문리대 67)<br>조정현 (수의대 58)<br>주선후 (음대 54)<br>최영태 (문리대 67)<br>최원로 (의대 42)<br>최준희 (의대 58)<br>최희웅 (문리대 61)<br>추재욱 (의대 57)<br>탁명양 (약대 50)<br>한인섭 (약대 )<br>허선행 (의대 58)<br>현건섭 (공대 55)<br>홍사만 (문리대 61) | <b>Nevada</b><br>이관 (공대 55)<br>이학은 (약대 57)<br>최영식 (법대 59) | <b>New York</b><br>강영선 (공대 50)<br>계동희 (치대 67)<br>곽승용 (의대 65)<br>권영국 (상대 60)<br>권영대 (공대 69)<br>김광호 (의대 66)<br>김동진 (약대 56)<br>김명승 (상대 65)<br>김문경 (약대 61)<br>김석식 (의대 58)<br>김석자 (음대 61)<br>김성진 (공대 56)<br>김승호 (공대 71)<br>김영배 (공대 78)<br>김용술 (상대 56)<br>김유연 (문리대 63)<br>김용학 (법대 70)<br>김우영 (상대 60)<br>김은태 (의대 46)<br>김종원 (사대 58)<br>김종울 (사대 51)<br>김진승 (문리대 53)<br>김창수 (약대 64)<br>김태욱 (공대 55)<br>김학수 (상대 65)<br>김해암 (의대 58)<br>김현중 (공대 63)<br>김형찬 (약대 54)<br>남상대 (간호대 66)<br>노용민 (의대 49)<br>라홍채 (공대 62)<br>민팔식 (사대 60)<br>박수안 (의대 59)<br>박순영 (법대 56)<br>박정식 (사대 59)<br>박현성 (약대 60)<br>배상규 (약대 61)<br>서경애 (음대 67)<br>서상철 (의대 49)<br>선우진영 (약대 57)<br>성기호 (약대 57)<br>송영순 (사대 60)<br>신남철 ( )<br>신(차)의경 (음대 55)<br>안재현 (상대 62)<br>양기영 (의대 49)<br>양금자 (미대 69)<br>양세판 (경대원 66)<br>오인환 (의대 67)<br>유광현 (의대 58)<br>유재섭 (공대 65)<br>유정자 (간호대 63)<br>유진일 (의대 60)<br>윤병남 (사대 62)<br>윤병하 (농대 80) | 윤영섭 (의대 57)<br>윤정옥 (약대 50)<br>이근수 (상대 64)<br>이대연 (약대 65)<br>이대영 (문리대 64)<br>이병무 (법대 57)<br>이성구 (약대 56)<br>이성수 (공대 56)<br>이영애 (치대 52)<br>이영애 (농대 59)<br>이정은 (의대 58)<br>이주경 (상대 68)<br>이준행 (공대 48)<br>이해창 (약대 62)<br>이현호 (공대 58)<br>이희경 (의대 55)<br>이희자 (간호대 70)<br>임건식 (음대 54)<br>임공세 (의대 61)<br>임대복 (의대 58)<br>장기선 (약대 61)<br>장영식 (법대 59)<br>장영자 (간호대 68)<br>전병삼 (약대 54)<br>정인식 (상대 58)<br>정진선 (간호대 82)<br>정택수 (문리대 46)<br>조남천 (사대 59)<br>조대영 (공대 61)<br>조숙자 (간호대 59)<br>조중수 (공대 64)<br>조대환 ( )<br>조황환 (치대 65)<br>차국만 (상대 56)<br>친병수 (공대 70)<br>최구진 (약대 54)<br>최석진 (사대 54)<br>최수용 (상대 55)<br>최영혜 (간호대 64)<br>최일단 (미대 55)<br>최태식 (의대 69)<br>최한용 (농대 58)<br>최형무 (법대 69)<br>한경수 (문리대 57)<br>한승진 (의대 70)<br>한영수 (의대 61)<br>한용진 (미대 55)<br>한용호 (법대 48)<br>한호 ( )<br>함종금 (간호대 66)<br>허병렬 (사대 42)<br>홍선경 (의대 58)<br>황문하 (수의대 76)<br>황성현 (공대 56)<br>황용규 (의대 66) | 박용순 (공대 61)<br>서윤석 (의대 62)<br>손기용 (의대 55)<br>송용덕 (의대 57)<br>송용재 (의대 63)<br>이범세 (의대 56)<br>이영웅 (의대 56)<br>이용재 (공대 60)<br>이원호 (의대 53)<br>이익삼 (사대 58)<br>정길화 (의대 59)<br>채혜숙 (문리대 70)<br>최인갑 (공대 57)<br>홍준표 (의대 58) | <b>Oklahoma</b><br>김경숙 (생활대 70)<br>이상강 (의대 70) | <b>Oregon</b><br>김상만 (음대 46)<br>김상순 (상대 67)<br>김선호 (사대 59)<br>김영자 (간호대 53)<br>성성모 (사대 67)<br>최근녕 (법대 63)<br>최동근 (문리대 50)<br>한영준 (사대 60) | <b>Pennsylvania</b><br>강영배 (농대 59)<br>고병은 (문리대 55)<br>김국간 (치대 64)<br>김영우 (공대 55)<br>김용국 (의대 58)<br>김재술 (약대 58)<br>김주진 (법대 54)<br>남영진 (공대 )<br>민홍식 (수의대 60)<br>박영환 (약대 68)<br>변국환 (공대 75)<br>서중민 (공대 64)<br>손재욱 (가정대 77)<br>송영두 (의대 56)<br>신선자 (사대 60)<br>심완섭 (의대 67)<br>양운택 (의대 58)<br>오진석 (치대 56)<br>윤정나 (음대 57)<br>이규호 (공대 56)<br>이만택 (의대 52)<br>이봉재 (공대 95)<br>이성숙 (생활대 74)<br>이수경 ( )<br>이영재 (상대 58)<br>이지춘 (미대 )<br>장성환 (의대 55)<br>전무식 (수의대 61)<br>전방남 (상대 73)<br>전희곤 (의대 54)<br>정영자 (치대 63) | 정용남 (문리대 60)<br>정홍택 (상대 61)<br>제갈은 (문리대 59)<br>조영일 (공대 68)<br>조영호 (음대 56)<br>주기목 (수의대 68) | <b>Rhode Island</b><br>오세자 (인문대 71) | <b>Tennessee</b><br>용준식 (의대 48)<br>정성장 (의대 43) | <b>Texas</b><br>곽노환 (문리대 48)<br>곽용길 (문리대 59)<br>김기준 (공대 61)<br>김대준 (공대 81)<br>김영옥 (가정대 74)<br>김영창 ( )<br>김의신 (의대 60)<br>김정훈 (의대 46)<br>김진만 (공대 57)<br>김현정 (간호대 70)<br>명인성 (공대 50)<br>박민자 (사대 58)<br>박석규 (간호대 59)<br>박영규 (사대 66)<br>신달수 (공대 59)<br>유금용 (법대 50)<br>유길선 (농대 73)<br>유세만 (공대 59)<br>이규진 (약대 60)<br>이길영 (문리대 59)<br>전중희 (공대 56)<br>정철률 (의대 55)<br>조시호 (문리대 59)<br>조진태 (문리대 57)<br>진기주 (상대 60)<br>최관일 (공대 54)<br>최성호 (문리대 58)<br>최용천 (의대 53)<br>탁순덕 (사대 57)<br>황의찬 (사대 76) | 박용걸 (약대 56)<br>박윤수 (문리대 48)<br>박일영 (문리대 59)<br>박병일 (농대 69)<br>박형순 (의대 54)<br>변만식 (사대 49)<br>서희열 (의대 55)<br>신용계 (의대 62)<br>오원섭 (수의대 53)<br>유홍열 (문리대 74)<br>윤개일 (약대 60)<br>이내원 (사대 58)<br>이승희 (음대 55)<br>이연규 (미대 60)<br>이영목 (공대 59)<br>이형모 (의대 45)<br>정계훈 (문리대 55)<br>정원자 (농대 62)<br>최규식 (상대 64)<br>최동현 (문리대 50)<br>최완열 (상대 56)<br>최준호 (공대 60) | <b>Washington</b><br>구본영 (공대 65)<br>김영일 (공대 53)<br>김윤국 (문리대 49)<br>김인배 (수의대 59)<br>김재훈 (공대 72)<br>박홍 (상대 68)<br>박종수 (공대 74)<br>박진수 (의대 56)<br>변중혜 (법대 58)<br>송준 (공대 55)<br>신창범 (법대 73)<br>양용관 (수의대 62)<br>유성현 (공대 72)<br>이정희 (약대 82)<br>이대원 (사대 58)<br>이순모 (공대 63)<br>이종성 (의대 58)<br>이창렬 ( )<br>최준한 (농대 58)<br>홍계인 (음대 60)<br>황재규 (공대 54) | <b>Wisconsin</b><br>김영화 (문리대 65)<br>이영균 (의대 61)<br>이기억 (문리대 46)<br>장홍 (문리대 61)<br>장세곤 (의대 57)<br>전장호 (공대 55) | <b>West Virginia</b><br>정약훈 (의대 47)<br>김홍락 (문리대 52) |
|----------------------------|----------------------------------------------------------------------------------------------------------------------------------------------------------------------------------------------------------------------------------------------------------------------------------------------------------------------------------------------------------------------------------------|----------------------------------------------------------------------------------------------------------------------------------------------------------------------------------------------------------------------------------------------------------------------------------------------------------------------------------------------------------------------------------------------------------------------------------------------------------------------------------------------------------------------------------------------------------------------------------------------------------------------------------------------------------------------------------------------------------------------------------------------------------------------------------------------------------------------------------------------------------------------------------------------------------------------------------------|-----------------------------------------------------------|-------------------------------------------------------------------------------------------------------------------------------------------------------------------------------------------------------------------------------------------------------------------------------------------------------------------------------------------------------------------------------------------------------------------------------------------------------------------------------------------------------------------------------------------------------------------------------------------------------------------------------------------------------------------------------------------------------------------------------------------------------------------------------------------------------------------------------------------------------------------------------|--------------------------------------------------------------------------------------------------------------------------------------------------------------------------------------------------------------------------------------------------------------------------------------------------------------------------------------------------------------------------------------------------------------------------------------------------------------------------------------------------------------------------------------------------------------------------------------------------------------------------------------------------------------------------------------------------------------------------------------------------------------------------------------------------------------------------------------------------------|-----------------------------------------------------------------------------------------------------------------------------------------------------------------------------------------------------------------|------------------------------------------------|-----------------------------------------------------------------------------------------------------------------------------------------|---------------------------------------------------------------------------------------------------------------------------------------------------------------------------------------------------------------------------------------------------------------------------------------------------------------------------------------------------------------------------------------------------------------------------------------------------------------------------------------------------|-------------------------------------------------------------------------------------------|-------------------------------------|------------------------------------------------|-------------------------------------------------------------------------------------------------------------------------------------------------------------------------------------------------------------------------------------------------------------------------------------------------------------------------------------------------------------------------------------------------------------------------------------------------------------------------------------|----------------------------------------------------------------------------------------------------------------------------------------------------------------------------------------------------------------------------------------------------------------------------------------------------------------------------------------------|-------------------------------------------------------------------------------------------------------------------------------------------------------------------------------------------------------------------------------------------------------------------------------------------------------------------------------------------|--------------------------------------------------------------------------------------------------------------|-----------------------------------------------------|

## 동창회비 2010/2011 회계년도

|                              |                                                                                                                                                                                                                                           |                                                                                                                                                                                                                                                |                                                                                        |                                                             |                                               |                                             |                                                                                                                                                                                        |                                                         |                                               |                                                                                             |             |                                                              |                                                 |                                  |                                   |                                                                                                                                                                                         |
|------------------------------|-------------------------------------------------------------------------------------------------------------------------------------------------------------------------------------------------------------------------------------------|------------------------------------------------------------------------------------------------------------------------------------------------------------------------------------------------------------------------------------------------|----------------------------------------------------------------------------------------|-------------------------------------------------------------|-----------------------------------------------|---------------------------------------------|----------------------------------------------------------------------------------------------------------------------------------------------------------------------------------------|---------------------------------------------------------|-----------------------------------------------|---------------------------------------------------------------------------------------------|-------------|--------------------------------------------------------------|-------------------------------------------------|----------------------------------|-----------------------------------|-----------------------------------------------------------------------------------------------------------------------------------------------------------------------------------------|
| <b>Alaska</b><br>윤제중 (농대 55) | 김용수 (경영대 74)<br>김은희 ( )<br>김익창 (의대 49)<br>김정민 (공대 66)<br>김희창 (공대 64)<br>남장우 (사대 56)<br>노명호 (공대 61)<br>노재민 (문리대 )<br>민영기 (치대 61)<br>박종성 (법대 53)<br>박종수 (수의대 58)<br>박형철 (사대 72)<br>부영무 (치대 70)<br>서정하 (공대 55)<br>서치원 (공대 69)<br>신우식 (치대 62) | 오명주 (간호대 77)<br>오찬수 (약대 57)<br>윤희성 (치대 65)<br>이성용 (음대 58)<br>이영일 (문리대 53)<br>이홍표 (의대 58)<br>임진자 (미대 60)<br>임진환 (치대 68)<br>임춘수 (의대 57)<br>임화식 (치대 59)<br>장기일 (치대 55)<br>정원훈 (상대 38)<br>정인환 (법대 54)<br>정제훈 (공대 64)<br>정황 (공대 64)<br>제영혜 (생활대 71) | 조동준 (의대 57)<br>조만연 (상대 58)<br>조태목 (사대 60)<br>주수봉 (공대 67)<br>현원영 (사대 45)<br>황만익 (사대 59) | <b>Florida</b><br>오석일 (의대 64)<br>윤홍철 (의대 56)<br>이정필 (의대 58) | <b>Georgia</b><br>김용진 (문리대 48)<br>최우택 (공대 76) | <b>Hawaii</b><br>김승태 (의대 57)<br>박장부 (의대 61) | <b>Illinois</b><br>강화영 (문리대 48)<br>김사직 (상대 59)<br>김재환 (사대 72)<br>송원희 (미대 60)<br>신석균 (문리대 54)<br>안은식 (문리대 55)<br>이소희 (의대 61)<br>이승자 (사대 60)<br>이승훈 (공대 66)<br>정호 (공대 62)<br>정병욱 (의대 53) | 조철 (공대 49)<br>천양곡 (의대 63)<br>최의필 (의대 53)<br>최혜숙 (의대 53) | <b>Indiana</b><br>한원중 (수의대 83)<br>곽일성 (의대 60) | <b>Maryland</b><br>공순옥 (간호대 66)<br>박명영 (의대 68)<br>안창호 (약대 70)<br>유덕영 (공대 57)<br>이재승 (의대 55) | 정태진 (의대 53) | <b>Michigan</b><br>권영조 (의대 55)<br>남상용 (공대 52)<br>이성길 (의대 65) | <b>Minnesota</b><br>김권식 (공대 61)<br>배병철 (문리대 65) | <b>N.Carolina</b><br>이석형 (사대 56) | <b>New Jersey</b><br>고순정 (간호대 69) | 김한중 (의대 56)<br>박건이 (공대 60)<br>박성일 (상대 58)<br>박진우 (상대 77)<br>박태호 (상대 76)<br>송기인 (의대 60)<br>양문석 (상대 54)<br>양성택 (상대 )<br>윤현남 ( )<br>이유찬 (의대 58)<br>이재덕 (법대 60)<br>이진규 (농대 60)<br>한인섭 (약대 ) |
|------------------------------|-------------------------------------------------------------------------------------------------------------------------------------------------------------------------------------------------------------------------------------------|------------------------------------------------------------------------------------------------------------------------------------------------------------------------------------------------------------------------------------------------|----------------------------------------------------------------------------------------|-------------------------------------------------------------|-----------------------------------------------|---------------------------------------------|----------------------------------------------------------------------------------------------------------------------------------------------------------------------------------------|---------------------------------------------------------|-----------------------------------------------|---------------------------------------------------------------------------------------------|-------------|--------------------------------------------------------------|-------------------------------------------------|----------------------------------|-----------------------------------|-----------------------------------------------------------------------------------------------------------------------------------------------------------------------------------------|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                                                       |                                                        |                                                          |                                                         |                                          |                                                  |                                      |                                    |
|-------------------------------------------------------|--------------------------------------------------------|----------------------------------------------------------|---------------------------------------------------------|------------------------------------------|--------------------------------------------------|--------------------------------------|------------------------------------|
| New York<br>김병술 (약대 52)<br>김상만 (법대 52)<br>김세중 (공대 50) | 김승호 (공대 71)<br>김진승(문리대53)<br>남상래(간호대66)<br>노용면 (의대 49) | 라홍채 (공대 62)<br>박고자 (음대 61)<br>박수한 (의대 59)<br>박찬명 (약대 57) | 양금자 (미대 69)<br>유무영 (공대 66)<br>이희경 (의대 55)<br>최영혜(간호대64) | 한승신 (의대 70)<br>한용진 (미대 55)<br>황문하(수의대76) | Ohio<br>고남규 (의대 61)<br>김용현(경영대66)<br>김윤성 (의대 63) | 송용덕 (의대 57)<br>송용재 (의대 63)<br>Oregon | 이은실(문리대53)<br>Texas<br>신달수 (공대 59) |
|-------------------------------------------------------|--------------------------------------------------------|----------------------------------------------------------|---------------------------------------------------------|------------------------------------------|--------------------------------------------------|--------------------------------------|------------------------------------|

기타 후원회비 및 기금 납부 동문

관악 후원금

동창회비를 \$75 이상 내신 분은 추가금액을 관악 후원금으로 이전했습니다.

Alaska  
윤제중(농대55)1,000

Arizona  
박양세(약대 48) 200  
지영환(의대 59) 200

California  
권대원(경대원59)200  
권영조(의대 57) 300  
김경화(간호대69)200  
김낙구(상대 25)  
김동산(법대 59) 200  
김동석(음대 64) 200  
김병연(공대 68) 200  
김석두(농대 58) 200  
김영선(문리대54)200  
김은종(상대59)1,000  
김종표(법대 58) 200  
김한평(치대 65) 200  
나경자(간호대70)200  
박국중(법대 57) 200  
박입하(치대 56) 25  
염동해(농대74)1,000  
원미랑(미대 65) 200  
유의영(문리56)1,000  
유재환(상대 67) 200  
유창호(약대 74) 200  
이병무(치대 70) 200  
이병준(상대55)1,000  
이선 (의대42) 2,000  
이선희(사대 53) 25  
이승훈(상대 74) 200  
이영일(문리대53)200  
이화숙(간호대67)200  
임낙균(약대 64) 300

임동호(약대 55) 200  
임용오(의대57)3,000  
임춘수(의대 57) 400  
장준 (인문대86) 200  
장진성(약대 66) 200  
전호선(수의대67)225  
전희택(의대 58) 200  
정원훈(상대 38) 200  
정창희(법대 54) 25  
조재길(사대 61) 200  
최용원(공대 57) 200  
현원영(사대 45) 400  
황만익(사대 59) 4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200  
라찬국(의대 58) 200

Delaware  
배성호(의대 65) 200

Florida  
전운상(공대 46) 200  
장구영(의대 50) 200

Georgia  
김용건(문리대48)200  
김용자(사대 60) 200  
문종현( ) 25  
주중평(약대 60) 500  
허지영(문리대66)500

Hawaii  
김창원(공대 49) 200

Illinois  
강창만(의대 58) 200  
구경희(의대59)1,000  
김길중(의대 59) 200  
김영호(의대 71) 200  
김윤범(의대 54) 200  
김윤태(의대63)1,000  
김재환(사대 72) 200  
김정주(문리대60)200  
노영일(의대 62) 200  
문병훈(사대 47) 100

박영규(농대 57) 200  
반용균(의대 53) 200  
서상현(의대 65) 125  
송순영(문리대 52)  
30,000  
송원희(미대 60) 200  
양홍미(약대 63) 200  
오기창(법대 50) 300  
윤효정(사대 87) 25  
이광선(의대 59) 200  
이승자(사대 60) 200  
이영우(문리대66)200  
이윤락(공대48)1,000  
이윤보(농대 57) 200  
임현재(의대 59) 600  
장기남(문리대62)200  
전현일(농대 62) 25  
정병욱(의대 53) 850  
정승규(공대 60) 200  
조대현(공대 57) 200  
조중행(의대63)1,000  
진관보(의대 72) 200  
최희수(문리대67)200  
한제은(의대 59) 500

Indiana  
김원화(음대 68) 225  
김태기(의대 62) 100

Kansas  
배규영(사대 68) 200

Massachusetts  
김세호(상대 56) 200  
이희규(공대 69) 200

Maryland  
강길중(약대 69) 200  
권철수(의대 68) 200  
김종호(약대 68) 200  
김창호(법대 56) 25  
오인환(문리대63) 200  
이태영(법대 60) 200  
이항열(법대 57) 25  
전경철(공대 55) 200

Michigan  
오동환(의대 65) 200  
차대양(공대 55) 200

Minnesota  
김태환(의대 58) 200  
왕규현(의대 56) 200

New Jersey  
권문용(미대 61) 200  
기도석(공대 67) 200

Kim Hong(공대 69) 200  
김연석(상대 54) 200  
김영일(약대 58) 25  
김자익(의대 69) 25

박정원(미대 66) 200  
박승원(공대 50) 500  
신정윤(공대 60) 200  
윤갑석(공대 53) 200  
윤현남( ) 200  
이경림(상대 64) 200  
이문희(문리대54)150  
이전구(농대60)1,000  
이태형(문리대62)200  
이훈영(상대 61) 200  
정준영(문리대67)100  
조정원(수의대58)200  
최희웅(문리대61)200  
한인섭(약대 ) 75  
허선행(의대 58) 200  
홍사만(문리대61) 25

Nevada  
김용재(의대 60) 200

New York  
강중무(사대 60) 200  
권영국(상대 60) 200  
권영태(공대 69) 200  
김명승(상대 65) 200  
김병숙(보대원64)200  
김병술(약대 52) 75  
김승호(공대 71) 200  
김영배(공대 78) 200  
김유연(문리대63)200  
김용학(법대 70) 305

김정순(법대 53) 200  
김종을(사대 51) 200  
김창수(약대 64) 200  
박준희(인문대86)200  
삼기호(약대 57) 200  
이근수(상대 64) 25  
이준행(공대48)3,000  
최구진(약대 54) 200  
최수용(상대 55) 200  
최한용(농대 58) 200  
최형무(법대 69) 200

North Carolina  
이석영(사대 56) 60

Ohio  
김윤성(의대 63) 200  
최인갑(공대 57) 200

Oklahoma  
김정숙(생활대70)200  
이상강(의대 70)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300

Pennsylvania  
김국간(치대 64) 200  
김주진(법대 54) 200  
김원탁(공대 65) 200  
서중민(공대 64) 200  
손재욱(가정대77) 200  
염국용(의대 54) 100  
이지춘(미대 ) 200  
정정수(의대 56) 200  
현재원(공대 60) 200

Texas  
김정훈(공대 46) 200  
김태훈(공대 57) 125  
명인성(공대 50) 200  
이희덕(농대 68) 200  
조시호(문리대59)200  
황의찬(사대 76) 200

Utah  
김성환(문리대59)200

Virginia  
김기봉(공대 63) 200  
박용걸(약대 56) 450  
박용수(문리대48)200  
박병일(농대 69) 25  
이규섭(상대 68) 200  
이내원(사대 58) 200  
이연구(미대 60) 25  
이영목(공대 59) 500  
정원자(농대 62) 200

Washington  
고광선 ( ) 225  
김성열(치대 61) 200

Wisconsin  
김영화(문리대65)200  
이영균(의대 61) 200

광고비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200  
권중건(치대 65) 120  
김경무(공대 69) 120  
김광철(음대 59) 120  
김원철(농대 ) 200  
김원탁(공대 65) 200  
김재영(농대 62) 120  
김종표(법대 58) 300  
박준창(인문대79)120  
서동영(사대 60) 120  
손학식(공대 61) 120  
신대식(상대 60) 120  
신혜원(사대 81) 120  
원영배(미대 74) 120  
윤종원(환대원85)120  
이경희(문리대57)200  
이근철(상대 56) 200  
이명일(약대 72) 120  
이준배(사대 60) 120  
이형교(교대원66)120  
임봉기( ) 200  
장준 (인문대86) 120  
정복근(사대 69) 120

정지선(상대 58) 300  
조홍준(상대 65) 120  
최준호(치대 58) 120

Illinois  
김영호(의대 71) 120  
김재환(사대72)2,500  
심상구(상대 63) 120  
이재희(상대 63) 120  
이준우(치대 54) 120

Maryland  
이준영(치대 74) 120

New Jersey  
김세환(공대 65) 120  
김영휘(법대 80) 120  
오영식(법대 72) 120  
이경림(상대 64) 120  
최영태(문리대67)120

New York  
강중무(사대 60) 120  
김광호(문리대62)300  
김명승(상대 65) 120  
김영배(공대 78) 120  
김용배(인문대77)120  
김용학(법대 70) 120  
김창수(약대 64) 120  
윤병하(농대 80) 200  
이근수(상대 64) 120  
조대영(공대 61) 120  
최형무(법대 69) 120  
한영수(의대 61) 120

Oregon  
김상순(상대 67) 120

Pennsylvania  
김국간(치대 64) 120  
손재욱(생활대77) 200  
허창기(약대 67) 200

Texas  
이윤성(수의대81)200  
조시호(문리대59)300

Virginia  
박상근(법대 75) 150  
이규섭(상대 68) 200

Washington  
김성열(치대 61) 200  
유성열(공대 72) 200

모교발전기금

Washington  
고광선(공대 57) 500

종신이사회비

California  
조용원(문리66)1,500

특별후원금

Korea  
모교 총장실 10,000  
임광수 동창회장 3,000

Illinois  
Chicago Golden Club 1,000

아시아나항공 2,000

평의원회비

California  
이장우(문리72) 100

Texas  
이석호(78) 100



제19차 평의원 시카고 회의에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 June 11~13, 2010

장소 :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 Lincolnshire  
IL 60069 Tel (847)634-0100

6월11일

3:00~5:00 pm. Check in 등록및 접수  
6:00~10:00 pm. 초빙강사 강연및 토론회

6월12일

9:00~5:00pm. 19차 평의원 회의  
6:30~7:30 pm. Reception, Cocktail  
8:00~10:00. 평의원, 총장, 동창회장 환영 디너

6월13일

8:00am~12:00 Check out  
11:00am~5:00pm. 19차 평의원 회의 환영 골프대회  
6:00pm~10:00pm 골프대회 시상식및 디너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 남가주

### 건축/컨설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영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흥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 금융/재정설계

###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캐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The Westar Group

### 리테일러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익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리테일러/리퀴스토아/식품점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ett St. Anaheim CA 92801

##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 변호사/법률사무소

###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럭키부동산 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213) 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학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Valley Lyons Pet Hospital**

권태삼(수의대 73) 661-254-6680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아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A CA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tl.700 LA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vd Ph-A LA CA 90010

**의료/약국**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6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8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8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8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의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설(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의료/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의료/방사선과**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개업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중(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점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취(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교회/개회자**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사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 / 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vo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키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취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 /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양공

Driveteck,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여행사  
김 국(농대 75) ◦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외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중국(의대 52) ◦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테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8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영무광(문리 61) ◦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강동희(공대 66) ◦ (630) 207-2515  
24 Corni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외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형(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약원/문화약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외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직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종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무역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8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동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l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l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웅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l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당/재정설계

송기회 기술상담  
송기회(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ton NJ 08003

서비스/장금장식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외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해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옥(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중(의대 8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악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일게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192호 2010년 4월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 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 (610)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명남(의대 61) ◦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 (215) 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TX

후스런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민성(공대 50) ◦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 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업소특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특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UT

유티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광고 게재 협조요청

모교 서울대에서 발행중인 ‘大學新聞’ 이 미주 동문 여러 분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고 게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고 단가는 4단 1면 400만원, 5단(17cm x 37cm)기준 흑백이 50만원, 컬러 광고인 경우 75만원이다. 또 9단 세로 컬러 광고는 100만원이다.

광고 관련 연락처

전화 02-880-5215(담당자 박이진)  
팩스 02-872-9511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춘(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정광(LA) 임승배(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          |      |              |                                            |
|----------|------|--------------|--------------------------------------------|
| 남가주      | 회장   | 김은중(상대 59입)  | ekin@pcr-ims.com                           |
|          | 차기회장 | 김지영(사대 69입)  | 213-272-9488                               |
| 북가주      | 회장   | 홍성제(치대 69입)  | 408-504-9358 sjhong@pacbell.net            |
|          | 차기회장 | 이장우(문리 72입)  | 408-891-0200                               |
| 샌디에이고    | 회장   | 민영기(치대 61입)  | 818-515-3217 ykmindds@aol.com              |
|          | 차기회장 | 임용갑(공대 84입)  | 858-527-0088 wilsonyyeem@gmail.com         |
| 뉴욕       | 회장   | 한경수(문리 57입)  | 516-742-8483 jsh1206@aol.com               |
|          | 차기회장 |              |                                            |
| 워싱턴DC    | 회장   | 윤경의(공대 57입)  | 703-542-7212 keyoon96@yahoo.com            |
|          | 차기회장 | 정상목(약대 83입)  |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
| 시카고      | 회장   | 이영우(문리 66입)  |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
|          | 차기회장 | 김사직(상대 59입)  | 630-523-1371                               |
| 필라델피아    | 회장   | 손재옥(가정 77입)  | 267-736-2992 jhaah@timhaahs.com            |
|          | 차기회장 | 조화연(음대 64입)  | 610-490-5335 robertwc@juno.com             |
| 휴스턴      | 회장   | 박홍우(공대 76입)  | 713-443-5310 henrypp@msn.com               |
|          | 차기회장 | 김순금(간호 69입)  | 713-828-5909 sibokkim@yahoo.com            |
| 댈러스      | 회장   | 이희덕(농대 67입)  | 214-727-4997 hdlee4@naver.com              |
|          | 차기회장 | 이석호(공대 78입)  | 972-475-1184                               |
| 조지아      | 회장   | 이영진(공대 76입)  |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
|          | 차기회장 | 김정호(공대 74입)  | 770-814-0618 jhkim@noabank.com             |
| 뉴잉글랜드    | 회장   | 윤상래(수의 62입)  | 978-343-3049 yoonsville@aol.com            |
|          | 차기회장 | 윤희경(문리 62입)  |                                            |
| 미네소타     | 회장   | 김영석(공대 73입)  | 612-750-0885 ysk495@gmail.com              |
|          | 차기회장 | 신학철(공대 75입)  |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
| 워싱턴주     | 회장   | 신창범(법대 73입)  |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
|          | 차기회장 | 이승택(수의대 75)  | 253-874-3558                               |
| 오하이오     | 회장   | 최인갑(공대 57입)  | 614-436-5780 jchoi613@gmail.com            |
|          | 차기회장 | 송원길(의대 58입)  | 614-378-2918                               |
| 하와이      | 회장   | 이상협(상대 82입)  | 808-956-8590 leesang@hawaii.edu            |
|          | 차기회장 | 전수진(농대 89입)  | 614-581-5875 soojin@hawaii.edu             |
| 하를랜드     | 회장   | 배규영(사대 68입)  |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
|          | 차기회장 | 구명순(간호대 66입) | 913-268-0228 chungmm@yahoo.com             |
| 플로리다     | 회장   |              |                                            |
|          | 차기회장 | 박창익(농대 64입)  |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
| 유타       | 회장   | 배유한(공대 73입)  | 801-474-1945 you.bae@utah.edu              |
|          | 차기회장 | 박찬호(자연 81입)  |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
| 캐들라이나    | 회장   | 김기현(문리 51입)  | 919-530-6541                               |
|          | 차기회장 |              |                                            |
| 로키 마운틴스  | 회장   | 전남인(사대 72입)  |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
|          | 차기회장 |              |                                            |
| 애리조나     | 회장   | 오윤환          | yhoh@ratheon.com                           |
|          | 차기회장 |              |                                            |
| 오레곤      | 회장   | 백대현(상대 )     | 503-587-0447                               |
|          | 차기회장 | 박희진(문리 57입)  | 503-848-6803                               |
| 알래스카     | 회장   | 윤제중(농대 55입)  |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
|          | 차기회장 | 배석연(농대 58입)  | 907-561-0818                               |
| 캐나다 온타리오 | 회장   | 한성택(약대 58입)  |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
|          | 차기회장 | 김학성(농대 74입)  | 905-873-1989 hakskim@gmail.com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박하일(문리 59입)  | 604-266-7955 hailpark@telus.net            |
|          | 차기회장 | 이 현(공대 79입)  |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이근홍(농대 65입)  |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
|          | 차기회장 | 조용희(자연 82입)  |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정도(한글 약 5천자, 1천 단어)입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등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a.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a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 운용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가 완전히 구축되는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차차 개선될 것이므로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aa.org/



함께하는 서울대의 도약  
VISION2025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배님, 우리 후배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이제 그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 ~ 2010년 7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위 기간동안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한 전 동문의 '약정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주지역 기부방법

####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발전기금미주재단은 뉴욕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501(c)(3)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 의무자께서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소 및 연락처, 계좌정보

Address : SNU Foundation Inc.,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USA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ennethleecpa.com  
담당자 : 이경림 (Kenneth K. Lee, CPA)

Bank Name : Shinhan Bank America, Little Neck Branch  
Address : 252-20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Account No. : 115-6-000805 (Routing No. : 026011963)

※ 미주재단으로 주식을 기부하셔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중 주식 계좌 개설 예정)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 광고

(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지난 3월호 31면